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101-01

# 교과서 표기 감수 지침(시안)

담당 연구원: 박 재 현



## <차 례>

1. 띄어쓰기 .....	4
가. 명사 .....	4
(1) 고유 명사 .....	4
(2)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	5
(3) 전문 용어 .....	7
(4) 합성 명사 .....	8
(5) 의존 명사 .....	13
(가) 일반 의존 명사 .....	13
(나) 단위성 의존 명사 .....	26
나. 대명사 .....	28
다. 수사 .....	29
라. 동사 .....	30
마. 형용사 .....	30
바. 부사 .....	31
사. 관형사 .....	32
아. 감탄사 .....	35
자. 조사 .....	36
차. 보조 용언 .....	40
카. 접사 .....	43
(1) 접미사 .....	43
(가) 고유어 접미사 .....	43
(나) 한자어 접미사 .....	48
(다) 접사 연속체 .....	53
(2) 접두사 .....	55
타. 어미 .....	56
파. 외래어 띄어쓰기 .....	61
2. 문장 부호 .....	62
가. 마침표[終止符] .....	62
(1) 온점(.), 고리점() .....	62
나. 물음표(?) .....	63

## 지침서의 취지

다. 느낌표(!) .....	64
라. 쉼표[休止符] .....	65
(1) 반점(.), 모점(、) .....	65
(2) 가운데띄점(·) .....	67
(3) 쌍점(:) .....	68
(4) 빗금(/) .....	68
마. 따옴표[引用符] .....	69
(1) 큰따옴표(“ ”), 겹낫표(『 』) .....	69
(2) 작은따옴표(‘ ’), 낫표(「 」) .....	69
바. 묶음표[括弧符] .....	70
(1) 소괄호( ( ) ) .....	70
(2) 중괄호( { } ) .....	71
(3) 대괄호( [ ] ) .....	71
사. 이음표[連結符] .....	71
(1) 줄표(—) .....	71
(2) 붙임표(-) .....	72
(3) 물결표(~) .....	72
아. 드러냄표[顯在符] .....	72
(1) 드러냄표(‘ ’) .....	72
자. 안드러냄표[潛在符] .....	73
(1) 숨김표(××, ○○) .....	73
(2) 빠짐표(□) .....	73
(3) 줄임표(……) .....	73
색인 .....	82

그동안 교과서의 표기가 일관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교과서를 감수할 때 참고할 만한 지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제작 또는 출판하는 기관들은 ‘어문 규정’을 따랐지만 ‘어문 규정’이 교과서 표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과서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어문 규정’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수 지침을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교과서마다, 학년마다 조금씩 다른 표기 규칙이 적용되어 왔고 이로 말미암아 학습자와 교사들은 교과서마다 다른 표기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이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어문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이 발간됨에 따라 교과서 표기 원칙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에 협정을 맺어 2008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표기를 어문 규정에 맞추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감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기 감수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전을 바탕으로 작성된 본 지침서도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밝힌다.

## 일러두기

- 이 지침서는 ‘어문 규정’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교과서 감수라는 특수 목적에 맞도록 규정을 제한하거나 지침을 추가하였다. 특히 띄어쓰기의 ‘원칙’과 ‘허용’ 조항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원칙’ 조항만을 인정하고 ‘허용’ 조항을 버렸다. 그러나 ‘허용’ 조항이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규정에 한해서는 ‘허용’ 조항을 인정하였다.
- 이 지침서는 교과서 감수 시에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어문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교과서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부분은 지침서에 실지 않았다.
- 띄어쓰기를 다루는 장(章)에서는 감수자가 찾고자 하는 항목을 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을 품사별로 배열하였다. 띄어쓰기에서 핵심은 해당 항목의 품사적 정보임을 고려한 것이다. 품사에는 속하지 않지만 띄어쓰기와 관련 있는 접사와 어미, 외래어의 띄어쓰기도 띄어쓰기 장에 포함하였다.
- 이 지침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교과서 감수 전문가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감수자는 문법 및 어문 규정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보아 문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때로는 전문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 하나의 문법 요소가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대표형뿐만 아니라 전체 이형태를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예) 커녕, 는커녕, 은커녕
- 해당 항목의 사용 예를 제시하는 경우, 자주 틀리는 항목인 경우에는 ‘맞음’과 ‘틀림’으로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항목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덧붙였다.

### 예1) 자주 틀리는 항목

<b>예</b>	
㉠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냄.	
㉡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냄.	
㉢ ‘경우’의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 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데?	지금 가는데가 어디인데?
㉡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머리 아픈데 먹는 약
[주의]어미로도 ‘-는데, -는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어미 ‘-는데’ 해설 참고	

### 예2) 예만 제시한 항목

<b>-쯤</b>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내일쯤, 이쯤, 얼마쯤, 중간쯤, 정쯤, 12월 20일쯤

- 단어의 뜻풀이, 품사 정보 및 용례는 국립국어원에서 1999년에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고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참고 도서를 활용하였다.
- 표준어 규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준어 여부가 불명확한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지침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어문 규정집을 참고하면 되므로 이 지침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 교과서 감수 시 검색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모음 배열 순서에 따라 색인을 덧붙였다.

## 표기 감수 지침

### 1. 띄어쓰기

교과용 도서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규정을 따르되, 원칙과 허용 조항이 있는 경우, 교과용 도서 편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을 따른다. 다만, ‘허용’ 조항이라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허용’을 인정한다. 각 품사별 띄어쓰기 규칙은 다음을 따른다.

#### 가. 명사

- 정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 예: 이순신, 금강산, 사랑, 연필, 하늘, 겨울, 친구, 이웃, 국가, 별, 짓, 바, 수, 나 름 등
- 용법: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1) 고유 명사

- 정의: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 의 기호를 붙인 이름
- 용법: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48항 참조).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최학수(崔學洙)	김영애(金榮愛)	유버들(柳- )
정송강(鄭松江)('송강'은 호)	이태백(李太白)('태백'은 자)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남궁억	남궁 억
독고준	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	황보 지봉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원칙	허용 안 됨
강 선생	강선생
인구 군	인구군
총장 정영수 박사	총장 정영수박사
백범 김구 선생	백범 김구선생
계 계장(桂係長)	계계장(桂係長)
사 사장(史社長)	사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여여사(呂女史)
주 주사(朱主事)	주주사(朱主事)

다만,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왕(大王)’, ‘여왕(女王)’, ‘거서간’, ‘차차용’, ‘마립간’ 등 이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쓰고 ‘왕(王)’이 붙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그러나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왕(王)’도 띄어 쓴다.

원칙	허용 안 됨
광개토 대왕	광개토대왕
세종 대왕	세종대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대왕
유리왕	유리 왕
아소카 왕	아소카왕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의 경우도 본항 규정이 적용된다.

소정방(蘇定方)	이세민(李世民)	장계석(莊介石)
----------	----------	----------

#### (2)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쓸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동일 책 내에서는 원칙과 허용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전 문 용어는 원칙과 허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즉, 원칙을 적용한 단어는 책 내에서 지속적으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허용을 적용한 단어는 일관되게 허용 이 적용되어야 한다(한글 맞춤법 49항 참조).

원칙	허용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 리과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관리부 동물관 리과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 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 실 경영평가분석부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 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 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다만, ‘부속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	허용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한, ‘도(道), 북도(北道), 남도(南道), 시(市), 읍(邑), 면(面), 리(里), 군(郡), 구(區), 동(洞), 해(海), 도(島), 섬, 만(灣), 역(驛), 양(洋), 사(寺), 선(線), 항(港), 산(山), 특별시, 광역시’가 붙는 우리말의 고유 명사는 붙여 쓴다. 그러나 ‘섬’의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니면 띄어 쓴다.

예
경기도, 충청남도, 과천시, 신림동, 서울역, 태평양, 백담사, 경부선, 인천항, 백두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 섬

외래어 지명에 산맥, 산, 강, 사막, 운하 등이 붙을 때는 띄어 쓰고 고유어·한자어 지명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

예
알프스 산맥, 몽블랑 산(Mont Blanc), 온타케 산(御岳), 리오그란데 강, 하야카와강(早川), 사하라 사막, 수에즈 운하, 도시마 섬(利島)
태백산맥, 태백산, 낙동강, 태안반도, 개마고원, 나주평야

지리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과 방위를 나타내는 말은 붙여 쓴다.

예
남아메리카, 북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북아메리카

### (3) 전문 용어

- 정의: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
- 용법: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동일 책 내에서는 원칙과 허용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전문 용어는 원칙과 허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 즉, 원칙을 적용한 단어는 책 내에서 지속적으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허용을 적용한 단어는 일관되게 허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허용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만국 음성 기호(万国音声記号)	만국음성기호
모음 조화(母音調和)	모음조화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処分)	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無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配當準備積立金)	배당준비적립금
손해 배상 청구(損害賠償請求)	손해배상청구
관상 동맥 경화증(冠狀動脈硬化症)	관상동맥경화증
급성 복막염(急性腹膜炎)	급성복막염
지구 중심설(地球中心說)	지구중심설
탄소 동화 작용(炭素同化作用)	탄소동화작용
해양성 기후(海洋性氣候)	해양성기후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여름 채소 가꾸기	여름채소가꾸기

다만,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말의 수식을 받을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맞음	틀림
간단한 도면 그리기	간단한도면그리기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쓸모있는주머니만들기

또한,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맞음	틀림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바닷말과물고기기르기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감자 찌기와 달걀 삶기	감자찌기와 달걀삶기
기구 만들기와 기구 다루기	기구만들기와 기구다루기
도면 그리기와 도면 읽기	도면그리기와 도면읽기

**(4) 합성 명사**

교과서를 감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합성어와 구를 관별하는 것이다. 구는 띄어 쓰고 합성어는 붙여 쓰기 때문에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합성어 관별에서 국어학적인 기준을 고려하되, 그 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태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즉, 일상적으로 많이 붙여 써서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판별한 경우는 합성어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감수 시에는 ‘합성어는 붙여 쓰고 구는 띄어 쓴다.’는 원칙을 지킨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합성어인지, 구인지를 관별하여 띄어쓰기를 적용하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동일한 구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합성어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을 참고하여야 한다.

예)  
소설 + 책 → 소설책

‘소설책’은 ‘소설’과 ‘책’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동일한 구성이지만 구로 보아 띄어 쓰는 경우도 있다.

노래 + 책 → 노래 책

‘소설책’과 ‘노래 책’은 모두 ‘명사+ 명사’의 구성이지만 ‘소설책’은 합성어로 보아 붙여 쓰고 ‘노래 책’은 구로 보아 띄어 쓴다. 이와 같이 구성은 같은데 띄어쓰기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합성어	구
각(角)	입사각	진입 각
갑	성냥갑	우유 갑, 화장품 갑
급(級) <sup>1)</sup>	간부급, 페더급, 장사급	스타 급, 천하장사 급, 사장 급
나무	과일나무, 사과나무, 커피나무	라일락 나무
년	딸년	기생 년
놈	아들놈	손자 놈, 조카 놈, 친구 놈
막(膜)	세포막	단백질 막, 증착 막, 가스 막
맥(脈)	날개맥	가로 맥, 세로 맥, 신경 맥
밖	창밖, 문밖	집 밖, 나라 밖
벽(壁)	철벽	씨방 벽
부실(不實)	부실기업	부실 금융
분	이분, 저분, 그분	친구 분, 손님 분, 친척 분
성(城)	모래성	유리 성
속	가슴속, 마음속, 땅속, 물속, 꿈속	숲 속, 바다 속

씨	범씨, 홍화씨, 호박씨, 오이씨	사과 씨, 해바라기 씨
약(藥)	설사약, 변비약, 눈약, 피부약	존중 약
음(音)	마찰음	주요 음, 발과 음
있	나뭇잎, 호박잎	싸리 잎, 봉선화 잎, 상추 잎
자(字)	로마자	기억 자, 엑스 자
차(差)	개인차	실력 차, 압력 차
차(車)	승용차	응급 차, 호송 차
책	소설책, 만화책	노래 책, 익힘 책, 음악 책
철(鐵)	철벽	철 대문
청(靑)	청기와, 청치마	청 대문
통(桶)	물통, 술통, 밥통, 쓰레기통	빨래 통, 반찬 통, 플라스틱 통
판(板)	과녁판, 광고판, 금속판, 유리판	고무 판, 나무 판, 알루미늄 판
편(篇)	대화편	기초 편, 수필 편
표(表)	차림표	배열 표
함(函)	보석함, 사물함, 보관함	열쇠 함, 분리수거 함
향(香)	장미향	딸기 향, 레몬 향, 바나나 향

위의 예들은 동일한 구성이라 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을 때 합성어와 구로 구별되는 예들이다. 이와 반대로, 비록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합성어로 보고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합성어임에도 사전에 등재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합성어를 사전에 등재한다는 것이 ‘사전의 분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명사 ‘값, 금, 길, 꽃’ 등이 붙은 낱말은 사전 미등재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사전 등재어	사전 미등재어
가	강가, 냇가, 우물가	해변가
감	한복감, 빨랫감, 사윗감, 장군감	회장감, 놀잇감
값	옷값, 책값, 밥값, 떡값 <sup>2)</sup> , 술값	기름값, 물값, 물건값, 신문값, 음식값
강(腔)	골강	심장강
거리	반찬거리, 국거리, 안줏거리	논문거리
과(科)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도덕과, 마취과
관(管)	유리관	실험관
광(光)	태양광	전등광
구이	갈치구이	생선구이
군(群)	강군	어선군, 식물군, 아파트군
군(軍)	예비군	시민군, 진압군, 나폴레옹군, 프랑스군
굽이	강굽이, 물굽이	언덕굽이
균(菌) <sup>3)</sup>	이질균, 살모넬라균	서해 표피균
극(劇) <sup>4)</sup>	무언극, 사상극	일인극

1) ‘페더급’, ‘주니어급’, ‘장사급’과 같이 체급을 나타내는 말은 운동 전문어이므로 표제어에 없더라도 붙여 쓴다. 임시어로 쓰이지만 분명 체급을 나타내는 말인 ‘백두장사급, 한라장사급’과 같은 말도 모두 붙여 쓴다.  
2) ‘스타급’이 요트의 선급(船級)을 나타내는 운동 전문어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스타 급 연예인’과는 구별된다.

금	금가락지, 금가루	금두꺼비, 금목걸이, 금수저
근(筋)	삼두박근	등세모근
길	등곶길, 출근길, 여행길	유학길, 산책길, 시장길, 방문길
꽃	장미꽃, 개나리꽃	도라지꽃, 무궁화꽃, 목련꽃, 민들레꽃
꽃	꽃국, 꽃다지, 꽃소주	꽃장식
난(難)	교통난, 구인난, 취직난	주차난
날이	돌실날이	강진날이, 고양날이, 안동날이
놀이	각시놀이, 고무줄놀이	수수께끼놀이, 시장놀이, 병원놀이
당(黨)	카르보나리당	청년 이탈리아당
덩어리	골칫덩어리, 사곳덩어리	애꿍덩어리
덩이	골칫덩이	심술덩이
대	건조대	급수대, 조회대, 독서대
량(量) <sup>5)</sup>	노동량, 작업량	수출량
례(例)	판결례	작도례(作圖例), 인용례
마님	영감마님, 대감마님	나리마님
마마	상감마마, 아바마마	대비마마, 대왕마마
막	점막	보호막
망(網) <sup>6)</sup>	연락망, 통신망, 정보망, 조직망	점포망, 체신망
면(面) <sup>7)</sup>	절단면, 접촉면, 비탈면	기름면, 경계면, 마찰면, 압반면
명(名)	곡명	작품명, 저자명, 발행소명
무침	오징어무침, 가오리무침	미나리무침
미(美)	송고미, 미소년, 미남자	우아미, 골계미, 음물미
반(半)	반죽음, 반직업적	반감옥살이, 반농담, 반의사
반(班)	작업반	단속반
방	만화방	토론방, 체현방, 피시방, 호텔방
밭	갈대밭	고추밭, 녹차밭, 담배밭, 배추밭
법(法) <sup>8)</sup>	거행지법, 징계법, 소송법	국어기본법
병(兵)	휴가병, 노병	환자병
병	유리병	플라스틱병, 링거병, 요구르트병
병(病)	간질병, 한센병	치아병
볶음	버섯볶음, 갈비볶음	멸치볶음
불(佛)	무량수불, 아미타불	사방불
비(比)	삼각비, 황급비	유동비
비(碑)	기념비	장수왕비
상	겸상	다과상, 생신상, 차례상
상(像) <sup>9)</sup>		어머니상, 아버지상, 교사상
상(賞)	인기상, 개근상, 스탈린상	신인상,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선(線) <sup>10)</sup>	완성선, 엑스선, 전자선	배열선, 절개선, 중성자선
승(僧)	탁발승	수행승
시(時)	사건시	행위시, 재판시
시(詩) <sup>11)</sup>	서정시, 연애시	애국시
식	분수식	곱쌈식, 덧쌈식, 나뭇쌈식, 뽕쌈식
신(神)	태양신	나무신
실(實)	실과	실수령액, 실거래액, 실시간
쌍(雙)	쌍가락지, 쌍가마, 쌍곡선	쌍춘년
안(案)	개현안	개혁안, 해결안
액(液)	냉각액, 링거액	비누액, 글리세린액, 수정액

열(熱) <sup>12)</sup>	가열(假熱)	홍반열
염(炎) <sup>13)</sup>	구내염	입과선염
염(鹽) <sup>14)</sup>	암염	무기염(無機鹽), 용해염
옥	옥가락지, 옥가루	옥제털이, 옥매트, 옥침대
왜(倭)	왜간장, 왜모시, 왜떡, 왜틀, 왜왕	왜주
은	은거울, 은공예	은갈치, 은귀고리, 은목걸이, 은찰잔
전(傳)	자서전, 홍길동전, 심청전	
점(點) <sup>15)</sup>	중심점	한계점, 인접점, 중간점, 해결점
조(組)		수비조, 습격조
죄(罪)	간통죄, 사기죄	모독죄
주의(主義)	민주주의, 이상주의	신앙주의
즙	겨자즙, 과일즙	미나리즙, 석류즙, 배즙, 양파즙, 쥘즙
직(職)	경관직	사무직, 국회의원직, 장관직
진(鎭)	거진(巨鎭)	부산진
질(質)	근육질	가족질, 화강암질
짬	갈비짬	해물짬
채(菜)	오이채, 무채, 송이채	고사리채
초(醋)	감초, 생강초, 과일초	달초, 사과초
총(銃)	기관총	쌍발총
축(軸) <sup>16)</sup>	수평축	수직축, 피동축(被動軸)
침(針)	분침, 시침, 초침, 피뢰침	한방침
탄(炭)	조개탄	배합탄
탄(彈)	철갑탄, 저격탄	피갑탄, 일체탄, 단총탄
탕(湯)	설렁탕	우거지탕
터	뉘시터, 놀이터, 배움터, 쌤터	나눔터
튀김	고구마튀김, 닭튀김	오징어튀김
티	막내티, 중년티	시골티, 촌티
파(派)	그노시스파, 프란체스코파	마르크스파
판(版)	가판(架版)	한글판, 영문판
패(牌)	감사패	증명패
표(表)	조사표	목록표, 세율표, 관세율표, 생활표
표(標)	마침표, 도돌이표	세도표
함(艦)	전투함	이지스함
형(刑)	금고형, 감금형	자격정지형
회(會)	친목회, 동창회	제비꽃회, 전우회, 어머니회
후(後)	후백제, 후보름, 후삼국	후고구려
동서남북, 상하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상(上), 하(下)'는 뒷말에 붙여 쓴다. <예> 동서울, 서대구, 남수원, 북부산, 상이집트, 하이집트	

- 2) '떡값'은 '추석 휴가비나 뇌물'의 의미가 아닐 때 즉, 합성어적인 의미가 아닌 '떡을 사는 값, 떡의 값'의 의미 일 때는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 3) '-상(狀) 균'의 꼴로 쓰이면 띄어 쓴다. (나선상 균)
- 4) '-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띄어 쓴다. (표현주의 극, 사실주의 극, 낭만주의 극)
- 5) 고유어와 외래어에 붙는 '양'도 붙여 쓴다. (구름양, 벡터양, 알칼리양)
- 6) '그물처럼 만들어 가려 두거나 치거나 하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일 때는 띄어 쓴다. (삼중 망, 이중 망, 철사 망)

다음은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하지만 종종 띄어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우리말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자.	우리 말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자.
우리글은 세종 때 만들어졌다.	우리 글은 세종 때 만들어졌다.
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sup>17)</sup>	제가 일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반하다.	한 눈에 반하다.
자네에게 뒷일을 부탁하네.	자네에게 뒷 일을 부탁하네.
지난달보다 성적이 올라서 다행이다.	지난 달보다 성적이 올라서 다행이다.
다른 해에 비해 지난가을엔 유독 비가 많이 왔다.	다른 해에 비해 지난 가을엔 유독 비가 많이 왔다.
지난날을 그리워하다	지난 날을 그리워하다
지난봄 남준걸은 한 소녀와 함께 이곳에 온 일이 있었다.	지난 봄 남준걸은 한 소녀와 함께 이곳에 온 일이 있었다.
지난여름은 유달리 무척이나 더웠다.	지난 여름은 유달리 무척이나 더웠다.
지난겨울 나는 얼어붙은 한강변을 헤매 있었다.	지난 겨울 나는 얼어붙은 한강변을 헤매 있었다.
나는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지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 이맘때 만나자.	내일 이맘 때 만나자.
밤사이 눈이 내리다.	밤 사이 눈이 내리다.
단시간에 끝나다.	단 시간에 끝나다.
걱정이 이만저만 <sup>18)</sup> 이 아니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 때다.
통일이 될 그때를 기다리자.	통일이 될 그 때를 기다리자.
저 사람은 젊때 <sup>19)</sup> 보다 더 건강해졌다.	저 사람은 젊 때보다 더 건강해졌다.
다음날에 만나면 식사나 하죠.	다음 날에 만나면 식사나 하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들은 3월 초에 처음 만나서 그달 말에 약혼했다.	그들은 3월 초에 처음 만나서 그 달 말에 약혼했다.

- 7) '어떤 측면이나 방면'의 의미일 때는 띄어 쓴다. (분배 면에서, 외모 면에서)
- 8)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법'은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물리치료법, 마사지법)
- 9) '형상을 갖춘 구조물'의 의미로 쓰일 때는 뒬다. (마리아 상, 부처님 상)
- 10) ① 앞말이 한자어인 경우는 표제어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붙여 쓰고, 고유어인 경우는 표제어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쓰기한다. (목 선이 아름답다. 얼굴 선이 가름하다.)  
 ② 앞말이 고유어라도 수공 전문어(옷본 만들 때 쓰는 용어)인 경우는 붙인다. (시접선, 열선)  
 ③ 앞말이 '선'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성격을 가지거나 재료의 의미를 가지면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 쓴다. (황색 선, 청색 선 / 니크롬선, 금속 선, 텅스텐 선)
- 11) '-주의'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띄어 쓴다. (사실주의 시, 낭만주의 시)
- 12) 병 이름일 경우에만 붙인다.
- 13) '-성(性) 염'의 꼴로 쓰이면 띄어 쓴다. (화농성 염, 변성성 염)
- 14) '-화(化) 염'의 꼴로 쓰이면 띄어 쓴다. (이온화 염)
- 15) 옷본 만들 때 쓰는 용어도 붙인다. 이때, 사이시옷에 유의한다. (어갯점, 목뿔점, 목점)
- 16) 앞말이 '축'을 수식하는 단순한 관형어일 때는 띄어 쓴다. (상하 축(上下軸))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다음번을 기다리겠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다음 번을 기다리겠나?
독서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독서 이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명사이지만 명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붙여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10일 이상	10일이상
500만 원 이하	500만원이하
16자 이내	16자이내
1년 전	1년전
1년 후	1년후
50여 차례	50여차례
사회 속에서 <sup>20)</sup>	사회속에서
고객 지원 팀 <sup>21)</sup>	고객 지원팀
공격 때	공격때
그 밖의	그밖의
그 외의	그외의
나쁜 짓	나쁜짓

### (5) 의존 명사

- 정의: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 용법: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42항 참고).

### (가) 일반 의존 명사

거리
㉠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내용이 될 만한 재료.
㉡ (주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
㉢ (주로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제시한 수가 처리할 만한 것.

- 17) '한번'이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지만 '한 번, 두 번'하고 셀 때에는 띄어 써야 한다.
- 18) '부사'로도 쓰인다.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 19) '부사'로도 쓰인다. (그는 젊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 20) '속'은 명사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합성어의 예로는 가슴속, 골속, 굴속, 콧속 등이 있다.
- 21) '팀'은 명사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합성어의 예로는 강팀, 단일팀, 선발팀, 야구팀, 혼성팀 등이 있다.

맞음	틀림
㉠ 국거리	국 거리
㉡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구나.	반나절거리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구나.
㉢ 그 과일은 한 입 거리밖에 안 된다.	그 과일은 한 입거리밖에 안 된다.
[주의] 의존 명사이므로 그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용이 될 만한 재료'라는 뜻으로 명사 바로 뒤에 붙을 경우에는 관용에 따라 붙여 쓴다. 만약 그 경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표기 환경이면 사이시옷까지 쓰도록 한다(이야깃거리).	

맞음	틀림
<b>것</b> ㉠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여)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 ㉣ ('-는/은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 ('-르/을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내는 말. ㉥ ('-르/을 것' 구성으로 쓰여)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말.	
㉠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 집이다.	저기 보이는것이 우리 집이다.
㉡ 새파란 것이 어른에게 대든다.	새파란것이 어른에게 대든다.
㉢ 이 우산은 언니 것이다.	이 우산은 언니것이다.
㉣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것이다.
㉤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올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올것이다.
㉥ 공사 중이니 주의할 것.	공사 중이니 주의할것.

맞음	틀림
<b>겪</b> ㉠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어미 '-을'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	
㉠ 아침 겪 점심	아침겪 점심
㉡ 안부도 전할 겪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안부도 전할겪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맞음	틀림
<b>김</b> ('-은/는 김에'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김에 당장 합시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김에 당장 합시다.
참는 김에 더 참아 봅시다.	참는김에 더 참아 봅시다.

맞음	틀림
<b>나름</b> ㉠ (명사, 어미 '-기', '-을' 뒤에 '이다'와 함께 쓰여) 그 뉘뉘이나 하기에 달림을 나타냄. ㉡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나 감상을 이르는 말.	
㉠ 책도 책 나름이지.	책도 책나름이지.
㉡ 나는 내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나는 내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맞음	틀림
<b>나위</b> (주로 '-을 나위 없다' 구성으로 쓰여) 더 할 수 있는 여유나 더 해야 할 필요.	
새집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집이 더할나위 없이 좋다.
그가 감기에 걸렸음은 더 이야기할 나위가 없다.	그가 감기에 걸렸음은 더 이야기할나위가 없다.

맞음	틀림
<b>내</b> (일부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범위의 안.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라.	정해진 기한내에 마무리해라.
공장을 공업 단지 내로 옮겼다.	공장을 공업 단지내로 옮겼다.

맞음	틀림
<b>넘</b>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홍명순 넘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홍명순넘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명순 넘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명순넘은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주의] 접미사 '-님'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접미사 '-님' 참조(43쪽)	

<b>대로</b> ㉠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족. ㉣ ('대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용언이 반복되어, '-을 대로 -은' 또는 '-을 대로	
---	--

-어' 등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㉔ ('-을 수 있는 대로'의 구성으로 쓰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맞음	틀림
㉑ 시키는 <b>대로</b> 하다.	시키는 <b>대로</b> 하다.
㉒ 내일 동이 트는 <b>대로</b> 떠나겠다.	내일 동이 트는 <b>대로</b> 떠나겠다.
㉓ 틈나는 <b>대로</b> 찾아보다.	틈나는 <b>대로</b> 찾아보다.
㉔ 약해질 <b>대로</b> 약해지다.	약해질 <b>대로</b> 약해지다.
㉕ 될 수 있는 <b>대로</b> 빨리 오다.	될 수 있는 <b>대로</b> 빨리 오다.

[주의] 조사 '대로'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조사 '대로' 해설 참고(37쪽).

**데**  
 ㉑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냄.  
 ㉒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냄.  
 ㉓ '경우'의 뜻을 나타냄.

맞음	틀림
㉑ 지금 가는 <b>데</b> 가 어디인데?	지금 가는 <b>데</b> 가 어디인데?
㉒ 그 책을 다 읽는 <b>데</b> 삼 일이 걸렸다.	그 책을 다 읽는 <b>데</b> 삼 일이 걸렸다.
㉓ 머리 아픈 <b>데</b> 먹는 약	머리 아픈 <b>데</b> 먹는 약

[주의]어미로도 '-는데, -는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어미 '-는데' 해설 참고(56쪽).

**들**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쌀, 보리, 콩, 조, 기장 <b>들</b> 을 오곡이라 한다.	쌀, 보리, 콩, 조, 기장 <b>들</b> 을 오곡이라 한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b>들</b> 을 가방에 넣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b>들</b> 을 가방에 넣다.

[주의]접미사 '들'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접미사 '들' 해설 참고(44쪽).

**듯**  
 ㉑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㉒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㉑ 아는 <b>듯</b> 이 말했다.	아는 <b>듯</b> 이 말했다.
㉒ 잠을 잔 <b>듯</b> 만 <b>듯</b>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잠을 잔 <b>듯</b> 만 <b>듯</b> 정신이 하나도 없다.

[주의] 어미로도 '-듯(이)'가 있으므로 주의한다(58쪽).

**따름**  
 (주로 '-을 따름이다' 구성으로 쓰여) 오로지 그것뿐이고 그 이상은 아님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그저 당신을 만나러 왔을 <b>따름</b> 입니다.	그저 당신을 만나러 왔을 <b>따름</b> 입니다.
내가 멀리서 와 주다니 그저 기쁠 <b>따름</b> 이다.	내가 멀리서 와 주다니 그저 기쁠 <b>따름</b> 이다.

**따위**  
 ㉑ (명사 뒤에 쓰여)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나열되었음을 나타냄.  
 ㉒ (명사, 대명사, 어미 '-는' 뒤에 쓰여) 앞에 나온 대상을 낮잡거나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맞음	틀림
㉑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b>따위</b> 의 가전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b>따위</b> 의 가전제품
㉒ 아버지가 겪은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내 괴로움 <b>따위</b> 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겪은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내 괴로움 <b>따위</b> 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때문**  
 (명사나 대명사, 어미 '-기', '-은', '-는', '-던' 뒤에 쓰여)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

맞음	틀림
일이 많기 <b>때문</b> 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일이 많기 <b>때문</b> 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너 <b>때문</b> 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b>때문</b> 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리**  
 (어미 '-을' 뒤에 '있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그럴 <b>리</b> 가 없다.	그럴 <b>리</b> 가 없다.
동생이 사탕을 싫어할 <b>리</b> 가 있겠어?	동생이 사탕을 싫어할 <b>리</b> 가 있겠어?

**만**  
 ㉑ (주로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㉒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㉑ 3년 <b>만</b> 에 만난 사람	3년 <b>만</b> 에 만난 사람
㉒ 먹을 <b>만</b> 하다.	먹을 <b>만</b> 하다.

[주의] 조사 '만'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조사 '만' 해설 참고(37쪽).

<b>만큼</b>	
㉠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 (주로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 노력한 <b>만큼</b> 대가를 얻다	노력한 <b>만큼</b> 대가를 얻다
㉡ 까다롭게 검사하는 <b>만큼</b>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까다롭게 검사하는 <b>만큼</b>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의] 조사 ‘만큼’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조사 ‘만큼’ 해설 참고(38쪽).	

<b>바</b>	
㉠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 (어미 ‘-을’ 뒤에 쓰여) 일의 방법이나 방도. ㉢ (주로 ‘-은/는/을 바에(는)’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냄. ㉣ (일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는 바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주장을 단언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 평소에 느낀 <b>바</b> 를 말해라.	평소에 느낀 <b>바</b> 를 말해라.
㉡ 어찌할 <b>바</b> 를 모르다.	어찌할 <b>바</b> 를 모르다.
㉢ 어차피 매를 맞을 <b>바</b> 에는 먼저 맞겠다.	어차피 매를 맞을 <b>바</b> 에는 먼저 맞겠다.
㉣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b>바</b> 이다.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b>바</b> 이다.
[주의] 어미로도 ‘-은바, -는바’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어미 ‘-는바’ 해설 참고(57쪽).	

<b>바람</b>	
㉠ 무슨 일에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 ㉡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 (주로 의복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바람으로’ 꼴로 쓰여) 그 옷차림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 술 <b>바람</b> 에 할 말을 다했다.	술 <b>바람</b> 에 할 말을 다했다.
㉡ 급히 먹는 <b>바람</b> 에 체했다.	급히 먹는 <b>바람</b> 에 체했다.
㉢ 잠옷 <b>바람</b> 으로 뛰어다가다.	잠옷 <b>바람</b> 으로 뛰어다가다.

<b>번제</b>	
차레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세 <b>번제</b> 줄을 읽어 주세요.	세 <b>번제</b> 줄을 읽어 주세요.
몇 <b>번제</b>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니?	몇 <b>번제</b>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니?

<b>법</b>	
㉠ (어미 ‘-는’ 뒤에 쓰여) 방법이나 방식. ㉡ (어미 ‘-는’ 뒤에 쓰여)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 ㉢ (어미 ‘-는’ 뒤에 쓰여) 행동하는 습성의 예(例)를 이르는 말. ㉣ (‘-은/는 법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의 동작이나 상태가 당연함을 나타내는 말. ㉤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 그럴 것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 공부하는 <b>법</b> 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b>법</b> 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배라고 해서 선배에게 지라는 <b>법</b> 이 있나요?	후배라고 해서 선배에게 지라는 <b>법</b> 이 있나요?
㉢ 그는 아침밥을 거르는 <b>법</b> 이 없다.	그는 아침밥을 거르는 <b>법</b> 이 없다.
㉣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 <b>법</b> 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 <b>법</b> 입니다.
㉤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럴 <b>법</b> 도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럴 <b>법</b> 도 하네요.

<b>뻔</b>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자칫 일어날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넘어질 <b>뻔</b> 했다.	넘어질 <b>뻔</b> 했다.
사고가 날 <b>뻔</b> 했다.	사고가 날 <b>뻔</b> 했다.

<b>뻔</b>	
㉠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한가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다 뻔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맞음	틀림
㉠ 소문으로만 들었을 <b>뻔</b> 이네.	소문으로만 들었을 <b>뻔</b> 이네.
㉡ 시간만 보냈다 <b>뻔</b> 이지 한 일은 없다.	시간만 보냈다 <b>뻔</b> 이지 한 일은 없다.
[주의] ‘뻔’이 ‘남자뻔이다, 셋뻔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어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38쪽).	
[주의] ‘-(으)르뻔더러’는 하나의 어미로 규정되므로 ‘-(으)르 뻔더러’로 띄어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b>성</b>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싶다’나 ‘부르다’와 함께 쓰여) 추측 및 가능성 성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비가 올 <b>성</b> 싶다.	비가 올 <b>성</b> 싶다.
집값이 오를 <b>성</b> 싶다.	집값이 오를 <b>성</b> 싶다.

<b>수</b>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주로 ‘있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할 만한 힘이나 가능성.	
<b>맞음</b>	<b>틀림</b>
살다 보면 그럴 <b>수</b> 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b>수</b> 도 있지.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b>수</b> 밖에 없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b>수</b> 밖에 없다.

<b>시</b>	
㉠ 차례가 정하여진 시각을 이르는 말. ㉡ (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	
<b>맞음</b>	<b>틀림</b>
㉠ 지금 몇 <b>시</b> 나 되었나?	지금 몇 <b>시</b> 나 되었나?
㉡ 비행 <b>시</b> 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비행 <b>시</b> 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b>양</b>	
㉠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짐짓 취합 을 나타내는 말. ㉡ (어미 ‘-을’ 뒤에 ‘양으로’, ‘양이면’ 꼴로 쓰여) ‘의향’이나 ‘의도’의 뜻을 나타내 는 말.	
<b>맞음</b>	<b>틀림</b>
㉠ 열이 빠진 <b>양</b> 구경하다.	열이 빠진 <b>양</b> 구경하다.
㉡ 그는 친구들의 잠을 방해하지 <b>않을 양</b> 으로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친구들의 잠을 방해하지 <b>않을 양</b> 으로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 나갔다.

<b>이</b>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말하는 <b>이</b> 가 우리 삼촌이다.	말하는 <b>이</b> 가 우리 삼촌이다.
저 모자 쓴 <b>이</b> 가 누구지?	저 모자 쓴 <b>이</b> 가 누구지?

<b>적</b>	
(일부 명사나 어미 ‘-은’, ‘-을’ 뒤에 쓰여)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 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	
<b>맞음</b>	<b>틀림</b>
아이 <b>적</b> 에 있었던 일.	아이 <b>적</b> 에 있었던 일.
잠이 들 <b>적</b> 도 있고, 그저 누워만 있을 <b>적</b> 도 있다.	잠이 들 <b>적</b> 도 있고, 그저 누워만 있을 <b>적</b> 도 있다.

<b>족족</b>	
(어미 ‘-는’이나 의존 명사 ‘데’ 뒤에 쓰여) 어떤 일을 하는 하나하나.	
<b>맞음</b>	<b>틀림</b>
가는 <b>족족</b> 문제를 일으킨다.	가는 <b>족족</b> 문제를 일으킨다.
그는 가는 데 <b>족족</b> 따라다닌다.	그는 가는 데 <b>족족</b> 따라다닌다.

<b>줄</b>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새택은 밥을 지을 <b>줄</b> 모른다.	새택은 밥을 지을 <b>줄</b> 모른다.
그가 공부를 잘하는 <b>줄</b> 은 알았지만 전체 일 중인 줄은 몰랐다.	그가 공부를 잘하는 <b>줄</b> 은 알았지만 전체 일 중인 줄은 몰랐다.

<b>지</b>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그를 만난 <b>지</b> 가 오래되었다.	그를 만난 <b>지</b> 가 오래되었다.
입사한 <b>지</b> 3년이 지났다.	입사한 <b>지</b> 3년이 지났다.
[주의]어미 ‘-지’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어미 ‘-지’ 해설 참고(57쪽).	

<b>차</b>	
㉠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던 차에’, ‘-던 차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	
<b>맞음</b>	<b>틀림</b>
㉠ 그들은 선생님 택을 수십 <b>차</b> 방문했다.	그들은 선생님 택을 수십 <b>차</b> 방문했다.
㉡ 고향에 갔던 <b>차</b> 에 선을 보았다.	고향에 갔던 <b>차</b> 에 선을 보았다.
[주의] ‘차(次)’가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 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쓴다.	

<b>채</b>	
('은/는 채로'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웃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	웃을 입은채로 물에 들어간다.
벽에 기대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벽에 기대앉은채로 잠이 들었다.

<b>척</b>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b>맞음</b>	<b>틀림</b>
애써 태연한 척을 하다.	애써 태연한척을 하다.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다.	못 이기는척 자리에 앉다.

<b>체</b>	
(어미 '-은', '-는' 뒤에 쓰여)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b>맞음</b>	<b>틀림</b>
보고도 못 본 체 탄전을 부리다.	보고도 못 본체 탄전을 부리다.
그는 나를 본 체 만 체했다.	그는 나를 본체 만체했다.

<b>터</b>	
㉠ (어미 '-을' 뒤에 쓰여)'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 집에 갈 테야.	집에 갈테야.
㉡ 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터에 남 걱정을 한다.

<b>턱</b>	
㉠ (주로 어미 '-을' 뒤에서 '없다'와 함께 쓰이거나, '있다'와 함께 반어형으로 쓰여)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	
㉡ 그만한 정도나 처지.	
<b>맞음</b>	<b>틀림</b>
㉠ 영문을 알 턱이 없다.	영문을 알턱이 없다.
㉡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늘 그 턱이지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늘 그턱이지요.

<b>통</b>	
(명사나 어미 '-은', '-는' 뒤에서)(주로 '통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	
<b>맞음</b>	<b>틀림</b>
우리 가족은 난리 통에 뿔뿔이 헤어졌다.	우리 가족은 난리통에 뿔뿔이 헤어졌다.
장마 통에 눈발이 모두 물에 잠겼다.	장마통에 눈발이 모두 물에 잠겼다.

<b>편</b>	
㉠ '처지', '판국',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	
<b>맞음</b>	<b>틀림</b>
㉠ 사람이 죽고 사는 편에 너는 편하게 앉아 앉아 있니?	사람이 죽고 사는편에 너는 편하게 앉아 앉아 있니?
㉡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장기를 세판이나 두었다.
[주의] '편'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중에는 한자어도 있는데 다음은 그 예들이다.

<b>간(間)</b>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라.
[주의]'간'은 십년 간, 대장간처럼 접미사로도 쓰임. 접미사 '-간' 해설 참고(48쪽). 또한 '간'을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b>격(格)</b>	
㉠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셈', '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자격'의 뜻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었친 데 덮친격으로
㉡ 그 사람은 우리의 대장 격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대장격이다.

<b>군(君)</b>	
(성이나 이름 뒤에 쓰여)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	
<b>맞음</b>	<b>틀림</b>
김형수 군이 찾아왔습니다.	김형수군이 찾아왔습니다.
김 군, 어디를 그리 급히 가나?	김군, 어디를 그리 급히 가나?
[주의] 대명사로 쓰이는 '군'과 구분해서 사용.	

<b>대(代)</b>	
㉠ ('십', '이십', '삼십' 따위의 수 뒤에 쓰여) 사람의 나이를 십 년 단위로 끊어 나타내는 말.	
㉡ 가계나 지위를 이어받은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	
<b>맞음</b>	<b>틀림</b>
㉠ 그는 이십 <b>대</b> 소년 같다.	그는 이십 <b>대</b> 소년 같다.
㉡ 세종은 조선의 4 <b>대</b> 임금이다.	세종은 조선의 4 <b>대</b> 임금이다.
[주의] '대'는 선행 성분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명사와 의존 명사로 각각 달리 처리되는데, '숙종 대'는 '숙종의 대에는'에서 보듯 '대'의 자립성이 인정되므로 명사로 '이십 대, 팔십년 대'의 예는 '대'의 자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존 명사로 처리된다.	

<b>대(對)</b>	
두 짝이 합하여 한 벌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	
<b>맞음</b>	<b>틀림</b>
청군 <b>대</b> 백군	청군 <b>대</b> 백군
삼 <b>대</b> 일로 졌다.	삼 <b>대</b> 일로 졌다.

<b>등(等)</b>	
㉠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명사 뒤에 쓰여)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 울산, 구미, 창원 <b>등</b> 과 같은 공업 도시	울산, 구미, 창원 <b>등</b> 과 같은 공업 도시
㉡ 거리가 가까운 전남, 전북, 경남 <b>등</b> 3도 유격대의 선수를 초빙하여 씨름 대회	거리가 가까운 전남, 전북, 경남 <b>등</b> 3도 유격대의 선수를 초빙하여 씨름 대회를 열었다.

<b>등등(等等)</b>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농산물 도매 시장에는 사과, 배, 귤 <b>등등</b> 의 온갖 과일이 넘친다.	농산물 도매 시장에는 사과, 배, 귤 <b>등등</b> 의 온갖 과일이 넘친다.
이 건물 안에서 탁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는 <b>등등</b>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긴다.	이 건물 안에서 탁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는 <b>등등</b>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긴다.

<b>등속(等屬)</b>	
(명사 뒤에 쓰여) 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르는 말.	
<b>맞음</b>	<b>틀림</b>
송 씨는 손에 집히는 대로 은수저 다발과 돈뭉치, 금비녀 <b>등속</b> 을 꺼내 놓았다.	송 씨는 손에 집히는 대로 은수저 다발과 돈뭉치, 금비녀 <b>등속</b> 을 꺼내 놓았다.

<b>등지(等地)</b>	
(지명 뒤에 쓰여) 그 밖의 곳들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경주, 부산 <b>등지</b> 로 돌아다니다.	경주, 부산 <b>등지</b> 로 돌아다니다.
사탕수수는 브라질, 쿠바, 인도 <b>등지</b> 에서 많이 난다.	사탕수수는 브라질, 쿠바, 인도 <b>등지</b> 에서 많이 난다.

<b>씨(氏)</b>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b>맞음</b>	<b>틀림</b>
김 <b>씨</b>	김 <b>씨</b>
홍길동 <b>씨</b>	홍길동 <b>씨</b>
[주의] '씨'는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므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여 쓴다. (예: 김씨/이씨/박씨 부인/최씨 문중/의류당 김씨/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b>양(嬢)</b>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성(姓)이나 성명, 이름 뒤에 쓰여)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성 뒤에 쓰일 때는 낮잡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b>맞음</b>	<b>틀림</b>
최 <b>양</b> 이 발표해 보세요.	최 <b>양</b> 이 발표해 보세요.
영희 <b>양</b> 에게 내 방에 들르라고 하게.	영희 <b>양</b> 에게 내 방에 들르라고 하게.

<b>중(中)</b>	
㉠ 여럿의 가운데.	
㉡ (일부 명사 뒤에 쓰여)('는/-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동안.	
㉢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 (주로 '중으로' 꼴로 쓰여)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 안이나 속.	
<b>맞음</b>	<b>틀림</b>
㉠ 너희 <b>중</b> 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너희 <b>중</b> 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 근무 <b>중</b>	근무 <b>중</b>

㉔ 대학 재학 <b>중</b> 에 입대하다.	대학 재학 <b>중</b> 에 입대하다.
㉕ 그는 오늘내일 <b>중</b> 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내일 <b>중</b> 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㉖ 진흙 <b>중</b> 에서 나온 연꽃	진흙 <b>중</b> 에서 나온 연꽃

<b>측(側)</b>	
어떤 무리의 한쪽을 상대적으로 이르는 말.	
<b>맞음</b>	<b>틀림</b>
남한 <b>측</b>	남한 <b>측</b>
주최 <b>측</b>	주최 <b>측</b>

<b>편(便)</b>	
㉑ 사람이 오고 가거나 물건을 부쳐 보내는 데 이용하는 기회나 수단	
㉒ 쪽	
㉓ (주로 '-은/는 편이다' 구성으로 쓰여)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함을 나타내는 말.	
<b>맞음</b>	<b>틀림</b>
㉑ 기차 <b>편</b>	기차 <b>편</b>
㉒ 지는 <b>편</b> 에서 밥을 사기로 했다	지는 <b>편</b> 에서 밥을 사기로 했다
㉓ 그는 공부를 잘하는 <b>편</b> 이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b>편</b> 이다.

(나) 단위성 의존 명사

▪ 실례

한 <b>개</b>	차 한 <b>대</b>	금 서 <b>돈</b>
소 한 <b>마리</b>	옷 한 <b>벌</b>	열 <b>살</b>
조기 한 <b>손</b>	연필 한 <b>자루</b>	버선 한 <b>죽</b>
깎 한 <b>채</b>	신 두 <b>켤레</b>	북어 한 <b>패</b>

어문규정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띄어 쓰는 경우는 드물고 붙여 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원칙	허용	교과서
1446 <b>년 10 월 9 일</b>	1446년 10월 9일	1446년 10월 9일
16 <b>동 502 호</b>	16동 502호	16동 502호
80 <b>원</b>	80원	80원
10 <b>개</b>	10개	10개
7 <b>미터</b>	7미터	7미터
제일 <b>편</b>	제일편	제일편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한다.

원칙	허용	교과서
(제)이십칠 <b>대</b>	이십칠 <b>대</b>	이십칠 <b>대</b>
(제)오십팔 <b>회</b>	오십팔 <b>회</b>	오십팔 <b>회</b>
(제)육십칠 <b>번</b>	육십칠 <b>번</b>	육십칠 <b>번</b>
(제)구십삼 <b>차</b>	구십삼 <b>차</b>	구십삼 <b>차</b>

또, 연월일, 시간 등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한다.

원칙	허용	교과서
일천구백팔십팔 <b>년 오 월</b>	일천구백팔십팔 <b>년 오월 이</b>	일천구백팔십팔 <b>년 오월 이</b>
이십 <b>일</b>	십 <b>일</b>	십 <b>일</b>
여덟 <b>시 오십구 분</b>	여덟 <b>시 오십구분</b>	여덟 <b>시 오십구분</b>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원칙	허용 안 됨
삼 ( <b>개</b> )년 육 <b>개</b> 월 이십 <b>일(간)</b> 체류하였	삼( <b>개</b> )년 육 <b>개</b> 월 이십 <b>일(간)</b> 체류하였다.
다.	

그러나 ‘삼 년 육 개월 이십 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되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한다.

원칙	허용	교과서
3 <b>년 6 개월 20 일</b> 간	3년 6개월 20일간	3 <b>년 6개월 20일</b> 간

## 나. 대명사

- 정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
- 예: 저, 너, 우리, 너희, 자네, 누구,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아무것, 저기 등
- 용법: 대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다음은 대명사이지만 대명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붙여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김 <b>모(某)</b> 형사는 범인을 놓쳤다.	김 <b>모(某)</b> 형사는 범인을 놓쳤다.

다음은 합성 대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하지만 종종 띄어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형! <b>이이</b> 가 누구죠?	형! <b>이 이</b> 가 누구죠?
<b>그이</b> 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b>그 이</b> 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b>저이</b> 는 꼭 배우 같아!	<b>저 이</b> 는 꼭 배우 같아!
<b>이분</b> 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b>이 분</b> 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b>그분</b> 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b>그 분</b> 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b>저분</b> 은 우리 선생님이시다.	<b>저 분</b> 은 우리 선생님이시다.
<b>이것</b> 은 연필이다.	<b>이 것</b> 은 연필이다.
네 <b>옆</b> 에 있는 <b>그것</b> 이 무엇이냐?	네 <b>옆</b> 에 있는 <b>그 것</b> 이 무엇이냐?
<b>저것</b> 을 좀 보십시오.	<b>저 것</b> 을 좀 보십시오.

## 다. 수사

- 정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
- 예: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제일(第一), 제이(第二) 등
- 용법: 수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첫번째’를 수사로 보고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첫’은 관형사고 ‘번째’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또한 ‘제일(第一)’을 적을 때 ‘제(第)’를 띄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第)’는 한자어 접두사이기 때문에 뒷말에 붙여 써야 한다.

맞음	틀림
첫 <b>번째</b>	첫 <b>번째</b>
<b>제일</b> (第一)	<b>제 일</b> (第一)

다음은 수사이지만 수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띄어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그는 친구 <b>몇몇</b> 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친구 <b>몇 몇</b> 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라. 동사**

- 정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 예: 가다, 살다, 먹다, 흐르다, 이르다, 도착하다, 지내다, 구하다 등
- 용법: 동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마. 형용사**

- 정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 예: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 짧다, 옳다, 차갑다 등
- 용법: 형용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형용사 중에는 ‘있다’, ‘없다’가 붙어서 된 합성어가 많이 있다. 그러나 ‘있다’, ‘없다’와 함께 쓰이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은 띄어 써야 한다.

1) ‘있다’가 붙은 형용사

예
관계 <b>있다</b> , 뜻 <b>있다</b> , 맛 <b>있다</b> , 멋 <b>있다</b> , 빛 <b>있다</b> , 상관 <b>있다</b> , 재미 <b>있다</b>

2) ‘없다’가 붙은 형용사

예			
간곳 <b>없다</b>	꿈쩍 <b>없다</b>	막힘 <b>없다</b>	빈틈 <b>없다</b>
간데 <b>없다</b>	끄떡 <b>없다</b>	맛 <b>없다</b>	빛 <b>없다</b>
간데온데 <b>없다</b>	끓임 <b>없다</b>	맥 <b>없다</b>	빠짐 <b>없다</b>
갈데 <b>없다</b>	끝 <b>없다</b>	멋 <b>없다</b>	온데간데 <b>없다</b>
값 <b>없다</b>	난데 <b>없다</b>	문제 <b>없다</b>	
거침 <b>없다</b>	느닷 <b>없다</b>	물샬틈 <b>없다</b>	
경황 <b>없다</b>	다름 <b>없다</b>	밥맛 <b>없다</b>	
관계 <b>없다</b>	다시 <b>없다</b>	버릇 <b>없다</b>	
그지 <b>없다</b>	대중 <b>없다</b>	변함 <b>없다</b>	
기탄 <b>없다</b>	더 <b>없다</b>	보잘것 <b>없다</b>	
까딱 <b>없다</b>	덧 <b>없다</b>	본데 <b>없다</b>	
꿈쩍 <b>없다</b>	두말 <b>없다</b>	불품 <b>없다</b>	
꾸밈 <b>없다</b>	두서 <b>없다</b>	부질 <b>없다</b>	
꾸밈 <b>없다</b>	뜬금 <b>없다</b>	분별 <b>없다</b>	

**바. 부사**

- 정의: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 예: 매우, 가장, 과연, 그리고
- 용법: 부사는 그 앞말과 띄어 쓴다.

다음은 부사이지만 부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띄어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더 <b>욱</b> 더 풍성해진 가을걷이	더 <b>욱 더</b> 풍성해진 가을걷이
어린이가 탄생한 지 21일이 되어서 <b>이</b> <b>른</b> 바 ‘삼칠’을 지냈다	어린이가 탄생한 지 21일이 되어서 <b>이</b> <b>른 바</b> ‘삼칠’을 지냈다
그는 <b>이</b> 를 <b>테</b> 면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그는 <b>이</b> 를 <b>테</b> 면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b>또</b> 다시 당부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b>또</b> 다시 당부하겠습니다.
<b>하루</b> 바빠 서둘러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b>하루</b> 바빠 서둘러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b>하루</b>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b>하루</b>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b>이리</b> 저리 핑계를 대다.	<b>이리</b> 저리 핑계를 대다.
그는 <b>절</b> 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b>절</b> 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부모가 자녀를 <b>잘</b> 못 가르치다	부모가 자녀를 <b>잘</b> 못 가르치다
저 사람은 운동을 <b>곧</b> 잘 한다.	저 사람은 운동을 <b>곧</b> 잘 한다.
<b>밤</b> 낮 놀기만 하다	<b>밤</b> 낮 놀기만 하다
일기는 <b>그날</b> 그날 써야 한다.	일기는 <b>그날</b> <b>그날</b> 써야 한다.
말을 잘 듣던 아이도 <b>가끔</b> 가다 심통을 낼 때가 있다.	말을 잘 듣던 아이도 <b>가끔</b> <b>가다</b> 심통을 낼 때가 있다.

**사. 관형사**

- 정의: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 예: '순 우리말'의 '순', '저 어린이'의 '저', '한 사람'의 '한' 등.
- 용법: 관형사는 띄어 쓴다. 그러나 관형사 중에 관용적으로 그 뒷말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같은 관형사가 쓰였지만 합성어와 구를 구분해야 하는 예들이다.

<b>각(各)</b>	
날날의	
<b>합성어</b>	<b>구</b>
각살림	각 가정
각가지	각 개인

<b>갖은</b>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b>합성어</b>	<b>구</b>
갖은것	갖은 양념
갖은떡	갖은 고생

<b>귀(貴)</b>	
(일부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 상대방이나 그 소속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	
<b>합성어</b>	<b>구</b>
귀부인	귀 학교
귀사	귀 기관
[주의] '귀'는 '상대방이나 소속체를 높여 이를 때'는 관형사로, '존귀한, 값비싼'의 의미를 가질 때는 접두사로 본다.	

<b>긴긴</b>	
길고 긴.	
<b>합성어</b>	<b>구</b>
긴긴날	긴긴 세월

<b>동(同)</b>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b>합성어</b>	<b>구</b>
동급(同級)	동 회사
동가(同家)	동 기관

<b>판</b>	
㉠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른	
㉡ 다른	
<b>합성어</b>	<b>구</b>
㉠ 판말	판 이야기를 한다.
㉡ 판것	판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다.

<b>매(每)</b>	
하나하나의 모든. 또는 각각의.	
<b>합성어</b>	<b>구</b>
매년	매 회계 연도

<b>몇</b>	
㉠ 뒤에 오는 말과 관련된,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말.	
㉡ (의문문에 쓰여) 뒤에 오는 말과 관련된 수를 물을 때 쓰는 말.	
<b>예</b>	
㉠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 오늘 영화 몇 도인지 아니?	
[주의] '몇'은 의문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의문의 의미를 갖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몇'이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관형사는 뒷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대로 띄어 쓰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다음 예 1-3에서와 같이 붙여 쓴다.	
예1) 뒤에 숫자 표현이 오는 '몇'은 그 뒤의 숫자와 붙여 쓴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예2) 앞에 숫자 표현이 오는 '몇'도 그 앞의 숫자와 붙여 쓴다: 십몇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예3) 앞뒤로 숫자 표현이 오면 뒤의 숫자와만 붙여 쓰고 앞의 숫자와는 띄어 쓴다: 이번 사법 시험 합격자는 오백 몇십 명이다.	
('몇'이 의문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를 물어보는 데에 쓰일 경우: 너 몇 억 받았나?	
[참고 1] 의문문에 쓰이지만 의문사적 용법이 아닐 경우에는 붙여 쓴다: 국문과 경쟁률이 십몇 대 일이나 돼?('11~19' 사이의 숫자임을 알고 있으나 특정하게 가리키지 않으면서 말할 경우)	

<b>뭇</b>	
수효가 매우 많은.	
<b>합성어</b>	<b>구</b>
뭇까마귀	뭇 새
뭇매	뭇 백성

<b>별(別)</b>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	
<b>합성어</b>	<b>구</b>
별개	별 사이가 아니다
별걱정	별 문제가 안 된다

<b>본(本)</b>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b>합성어</b>	<b>구</b>
본교	본 사건
본사	본 협회
[주의]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의 뜻일 때는 관형사로, ‘바탕이 되는’의 뜻일 때는 접두사로 본다.	

<b>새</b>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b>합성어</b>	<b>구</b>
새것	새 손톱

<b>옛</b>	
지나간 때의.	
<b>합성어</b>	<b>구</b>
옛것	옛 추억
옛일	옛 모습

<b>오른</b>	
오른쪽을 이룰 때 쓰는 말.	
<b>합성어</b>	<b>구</b>
오른손	오른 다리
오른팔	오른 눈

<b>외판</b>	
외파로 떨어져 있는.	
<b>합성어</b>	<b>구</b>
외판곳	외판 마을
외판길	외판 봉우리

<b>왼</b>	
왼쪽을 이룰 때 쓰는 말.	
<b>합성어</b>	<b>구</b>
왼손	왼 무릎
왼팔	왼 다리

<b>전(前)</b>	
㉠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말.	
㉡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이전’ 또는 ‘앞’, ‘전반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b>합성어</b>	<b>구</b>
	전 방송국 아나운서
㉢ 전날, 전향	전 학기
[주의] ‘전(前)’은 ‘이전의, 앞의’의 뜻을 갖는 관형사로 합성어를 이루기도 하고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단일어가 되기도 하며, 자립 명사(결혼 **전**, **전에** 살던 동네)로도 사용된다.

<b>전(全)</b>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 ‘모든’ 또는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말.	
<b>합성어</b>	<b>구</b>
전무식(全無識)	전 인류, 전 세계

### 아. 감탄사

- 정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
- 예: 아, 하하, 예구머니, 이키 등
- 용법: 감탄사는 그 앞말과 띄어 쓴다.

다음은 감탄사이지만 감탄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띄어 쓰는 예들이다.

맞음	틀림
아이참, 속상해.	아이 참, 속상해.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자장자장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자. 조사

- 정 의: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 용 법: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41항 참조).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조사가 하나만 붙은 경우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진 경우	조사가 어미 뒤에 붙은 경우
꽃이	꽃 <b>에서부터</b>	나가 <b>면서까지</b>
꽃 <b>마저</b>	꽃 <b>으로만</b>	들어 <b>가기는커녕</b>
꽃 <b>밖에</b>	꽃 <b>이나마</b>	옵 <b>니다그러</b>
꽃 <b>이다</b>	집 <b>에서처럼</b>	“ <b>알았다.</b> ” <b>라고</b>
꽃 <b>입니다</b>	학교 <b>에서만이라도</b>	
꽃 <b>처럼</b>	여기 <b>서부터입니다</b>	
너 <b>조차</b>	어디 <b>까지입니까</b>	
어디 <b>까지</b>		
거기 <b>도</b>		
멀리 <b>는</b>		

주의해야 하는 조사

다음은 주의해야 하는 조사의 예이다. 의존 명사와 헛갈리는 조사를 띄어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같이	
㉠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냄.	
㉡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함.	
맞음	틀림
㉠ 얼음장 <b>같이</b> 차가운 방바닥	얼음장 <b>같이</b> 차가운 방바닥
㉡ 새벽 <b>같이</b> 떠나다.	새벽 <b>같이</b> 떠나다.

그래	
(-구면, -군, -지)와 같은 해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냄.	
맞음	틀림
기분이 좋아 보이는 <b>구면그래.</b>	기분이 좋아 보이는 <b>구면 그래.</b>
날씨가 맑은 <b>그래.</b>	날씨가 맑은 <b>그래.</b>

그러	
(하계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 또는 합쇼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냄.	
맞음	틀림
이제야 돌아왔네 <b>그러.</b>	이제야 돌아왔네 <b>그러.</b>
날씨가 맑습니다 <b>그러.</b>	날씨가 맑습니다 <b>그러.</b>

대로	
㉠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냄.	
㉡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맞음	틀림
㉠ 처벌하려면 <b>법대로</b> 해라.	처벌하려면 법 <b>대로</b> 해라.
㉡ 너는 너 <b>대로</b> 나는 나 <b>대로</b> 그곳에 가자.	너는 너 <b>대로</b> 나는 나 <b>대로</b> 그곳에 가자.
[참고] 의존 명사 ‘대로’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대로’를 참고할 것(15쪽).	

라고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냄.	
맞음	틀림
주인이 “많이 드세요.” <b>라고</b> 권한다.	주인이 “많이 드세요.” <b>라고</b> 권한다.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b>라고</b> 소리쳤다.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b>라고</b> 소리쳤다.

마는	
(종결 어미 ‘-다, -냐, -자, -지’ 따위의 뒤에 붙어) 앞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냄.	
맞음	틀림
사고 싶다 <b>마는</b> 돈이 없군.	사고 싶다 <b>마는</b> 돈이 없군.
얼마 되겠느냐 <b>마는</b> 보태어 쓰도록 해라.	얼마 되겠느냐 <b>마는</b> 보태어 쓰도록 해라.
[주의] ‘마는’은 ‘만’으로 줄어지기도 한다.	

만	
㉠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냄.	
㉢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냄.	
㉣ ‘겨우 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냄.	
㉥ (‘-어도, -으면’)의 앞에 쓰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냄.	
맞음	틀림

㉠ 하루 종일 잠 <b>만</b> 잤다.	하루 종일 잠 <b>만</b> 잤다.
㉡ 그를 만나야 <b>만</b>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를 만나야 <b>만</b>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 <b>만</b>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 <b>만</b>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 그 <b>만</b>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 <b>만</b>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 집채 <b>만</b> 한 과도가 물려온다.	집채 <b>만</b> 한 과도가 물려온다.
㉥ 너무 피곤해서 눈 <b>만</b>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너무 피곤해서 눈 <b>만</b>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주의] 의존 명사 ‘만’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만’을 참고할 것(17쪽).	

<b>만큼</b>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여자도 남자 <b>만큼</b> 일한다.	여자도 남자 <b>만큼</b> 일한다.
키가 전봇대 <b>만큼</b> 크다.	키가 전봇대 <b>만큼</b> 크다.
[주의] 의존 명사 ‘만큼’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만큼’ 해설 참고(18쪽).	

<b>밖에</b>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b>맞음</b>	<b>틀림</b>
하나 <b>밖에</b> 남지 않았다.	하나 <b>밖에</b> 남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b>밖에</b>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b>밖에</b> 없다.

<b>보다</b>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기차 <b>보다</b> 비행기가 빠르다.	기차 <b>보다</b> 비행기가 빠르다.
그는 나 <b>보다</b> 두 살 위이다.	그는 나 <b>보다</b> 두 살 위이다.
[주의] ‘보다’가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예) <b>보다</b> 높게 들어 올려라. / <b>보다</b> 빠르게 뛰다. 따라서 ‘보다’가 부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b>뿐</b>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남자 <b>뿐</b> 이다.	남자 <b>뿐</b> 이다.
너 <b>뿐</b> 만 아니라	너 <b>뿐</b> 만 아니라
[주의] 의존 명사 ‘뿐’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존 명사 ‘뿐’ 해설 참고(19쪽).	

<b>이다</b>	
(체언 뒤에 붙어) 주어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이것은 책 <b>이다</b> .	이것은 책 <b>이다</b> .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형님 <b>이다</b> .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형님 <b>이다</b> .

<b>치고</b>	
㉠ (체언 뒤에 붙어) ‘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뜻을 나타냄. 흔히 부정을 뜻하는 말이 뒤따른다.	
㉡ ‘그중에서는 예외적으로’의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 게으른 사람 <b>치고</b> 성공한 사람이 없다.	게으른 사람 <b>치고</b> 성공한 사람이 없다.
㉡ 겨울 날씨 <b>치고</b> 아주 따뜻하다.	겨울 날씨 <b>치고</b> 아주 따뜻하다.

<b>커녕</b>	
<b>는커녕</b>	
<b>은커녕</b>	
(체언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밥은 <b>커녕</b> 죽도 못 먹는다.	밥은 <b>커녕</b> 죽도 못 먹는다.
뛰어가기 <b>는커녕</b> 빨리 걷지도 않는다.	뛰어가기 <b>는커녕</b> 빨리 걷지도 않는다.

<b>하고</b>	
㉠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냄.	
㉢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냄.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줌.	
<b>맞음</b>	<b>틀림</b>
㉠ 철수는 너 <b>하고</b> 닮았다.	철수는 너 <b>하고</b> 닮았다.
㉡ 나 <b>하고</b> 놀자.	나 <b>하고</b> 놀자.
㉢ 사소한 오해로 그는 애인 <b>하고</b> 헤어졌다.	사소한 오해로 그는 애인 <b>하고</b> 헤어졌다.
㉣ 배 <b>하고</b> 사과 <b>하고</b> 감을 가져오너라.	배 <b>하고</b> 사과 <b>하고</b> 감을 가져오너라.

<b>하며</b>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줌. ‘하고’의 구어체이다.	
<b>맞음</b>	<b>틀림</b>
사과 <b>하며</b> 배 <b>하며</b> 많이 먹었다.	사과 <b>하며</b> 배 <b>하며</b> 많이 먹었다.
자동차 <b>하며</b> 집 <b>하며</b>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자동차 <b>하며</b> 집 <b>하며</b>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차. 보조 용언**

- 정의: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 용법: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교과서 감수 시에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띄어 쓰도록 한다.

원칙	허용 안 함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떠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아라.	떠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아라.
저분의 이름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저분의 이름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아이가 울어 쌓는다.	아이가 울어쌓는다.
비가 올 듯하다. <sup>22)</sup>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도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맞음	틀림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잘도 놀아만나는구나!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네가 덤벼들어보아라.
책을 읽어도 보고…….	책을 읽어도보고…….
그가 올 듯도 하다.	그가 올듯도하다.
잘난 체를 한다.	잘난 체를한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의존 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에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보조 용언	원칙	허용 안 됨
양하다	학자인 양한다.	학자인양한다.
체하다	모르는 체한다.	모르는체한다.
듯싶다	올 듯싶다.	올듯싶다.
뻔하다	놓칠 뻔하였다.	놓칠뻔하였다.

22) 앞의 ‘하-’가 생략된 체 ‘-(으)르 듯하다’가 반복되는 경우 ‘듯’과 ‘하다’ 사이를 뒀다.

맞음	틀림
비가 올 듯 말 듯 하다.	비가 올 듯 말듯하다.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동사인 경우에도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맞음	틀림
아는 체를 한다.	아는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한다.	비가 올듯도한다.
값을 물어만 본다.	값을 물어만본다.
믿을 만은 하다.	믿을만은하다.
밀어내 버렸다.	밀어내버렸다.
잡아매 둔다.	잡아매둔다.
매달아 놓는다.	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	집어넣어둔다.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도 띄어 쓴다.

원칙	허용 안 됨
나-가 버렸다.	나가버렸다.
빛-나 보인다.	빛나보인다.
손-대 본다.	손대본다.
잡-매 준다.	잡매준다.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도 앞의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원칙	허용 안 됨
기억해 둘 만하다.	기억해둘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읽어볼만하다
구해 줄 법하다.	구해줄법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되어가는듯하다

‘-어지다’와 ‘-어하다’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원칙	허용 안 됨
싫어지다, 찢어지다, 슬퍼지다, 느껴지다	싫어 지다, 찢어 지다, 슬퍼 지다, 느껴지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슬피하다, 고마워하다	좋아 하다, 싫어 하다, 슬피 하다, 고마워 하다

용언과 용언이 만나는 구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합성어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구가 된다.

예)  
 들려주다 = 들리 + -어 + 주다  
 알려 주다 = 알리 + -어 + 주다

둘 다 ‘용언 + -어 + 주다’의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들려주다’는 합성어이고 ‘알려 주다’는 구이다. 따라서 합성어인지 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동일한 구성이 합성어와 구로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다.

	합성어	구
주다	도와주다, 들려주다	알려 주다, 구해 주다
내다	물어나내다, 알아내다, 찾아내다, 찾아내다, 불러내다	살려 내다
보다	물어보다, 알아보다, 살펴보다	들춰 보다
놓다	들려놓다, 갈라놓다	웁겨 놓다
오다	들어오다	내어 오다
두다	덮어두다	펼쳐 두다
나오다	흘러나오다, 빠져나오다	돌아 나오다

카. 접사

(1) 접미사

- 정의: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용법: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가) 고유어 접미사

<b>-걸이</b>
예
모자걸이, 옷걸이, 팔걸이, 벽걸이, 목걸이

<b>-님</b>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 사장님, 총장님 ㉡ 달님, 별님, 토끼님, 해님 [주의] 의존 명사 ‘님’과 구분해야 한다. 의존 명사 ‘님’ 참조(15쪽).

<b>-답다</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꽃답다, 남자답다, 사람답다, 정답다, 참답다, 선생님답다.

<b>-당하다</b>
피해를 보는 피동성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하다’의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붙여 쓴다.
예
거절당하다, 무시당하다, 이용당하다, 체포당하다, 흑사당하다

<b>-되다</b>
‘-되다’는 피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접미사이다. ‘-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대체로 ‘-하다’도 붙을 수 있지만 ‘-하다’의 기능 여부와 무관하게 피동성을 나타내

는 말이면 모두 붙여 쓴다. 다음 예에서 '격양되다' 이후는 '-하다'가 붙은 짝이 없거나 어색한 말이다.
<b>예</b>
결합되다, 납치되다, 배치되다, 분해되다, 정리되다, 격양되다, 고갈되다, 단전되다, 마비되다, 숙련되다, 실종되다, 오염되다, 진척되다, 침체되다, 피랍되다

<b>-드리다</b>
'드리다'가 구체적인 사물을 윗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어떤 행위를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뜻하는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b>예</b>
감사드리다, 인사드리다, 말씀드리다, 불공드리다

<b>-들</b>
복수를 나타내는 말.
<b>예</b>
사람들, 그들, 사건들. [주의] 의존 명사 '들'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의존 명사 '들' 해설 참고(16쪽). [주의] 열거하는 말이 오더라도 '그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수를 표현하는 말일 경우에는 '-들'을 접미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둘 사이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다.

<b>-롭다</b>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b>예</b>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풍요롭다, 향기롭다

<b>-맞이</b>
(일부 명사 뒤에 붙어)어떠한 날이나 일, 사람, 사물 따위를 맞는다는 뜻을 더하는 말.
<b>예</b>
추석맞이, 새봄맞이, 손님맞이, 달맞이

<b>-받다</b>
'받다'가 구체적인 사물을 받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로서 그 앞말과 띄어 써

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 피동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b>예</b>
교육받다, 사랑받다, 오해받다 [주의] '받다'가 동사로서는 '주다'와 반대말 관계에 있으므로 '주다'와 대칭적으로 쓸 수 있으면 동사로 본다. 그러나 '주다'와 대칭적으로 쓸 수 없거나 대칭적으로 쓸 수 있더라도 접미사 '-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면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예) 고통 받다('고통 주다'가 가능하다), 편잔받다('편잔 주다'가 가능하지만 '편잔 하다'도 가능하다)

<b>-배기</b>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 나이배기, 알배기 ㉢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b>-살이</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기거하여 사는 생활'의 뜻을 더하는 말.
<b>예</b>
처가살이, 머슴살이

<b>-성</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순수성, 신축성, 양면성, 인간성, 잔인성, 적극성, 정확성, 창조성

<b>-스럽다</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b>예</b>
복스럽다, 걱정스럽다, 자랑스럽다

<b>-시키다</b>
구체적인 명사 뒤에서 그것을 주문한다는 뜻을 가질 때에는 동사이므로 그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행위성을 지닌 동사성 명사 뒤에서는 사동적인 뜻을 가진 접미사로 규정되므로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예
<b>발전시키다, 피신시키다, 호강시키다</b> [주의] '-를/-을 -시키다'로 쓸 수 있으면 붙여 쓴다. 어근이 분리되더라도 '을(를) 을(를) 시키다'로 써야 한다. 그러나 '시키다' 앞의 명사가 모종의 '일'임을 보여 주면 '-에(게) -을(를) 시키다'가 '을(를) 을(를) 시키다'보다 자연스럽다. 이때의 '시키다'는 동사로 본다. 예) 일 시키다(철수에게 일을 시키다 > 철수를 일을 시키다), 벼슬 시키다, 심부름 시키다, cf. 발전시키다(한국을 발전을 시키다, *한국에 발전을 시키다), 호강시키다(아내를 호강을 시키다, *아내에게 호강을 시키다)

-어치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th>예</th>	예
한 푼어치, 천 원어치, 얼마어치	

-잡이	
 <th>예</th>	예
고기잡이, 새잡이, 고래잡이, 꿩잡이, 조기잡이, 총잡이, 칼잡이, 두 살잡이	

-지다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말.  <th>예</th>	예
값지다, 기름지다, 세모지다, 멋지다.	

-질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일' 또는 '그런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물질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몇몇 의성어 또는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th>예</th>	예
㉠ 가위질, 갈레질, 망치질, 부채질 ㉡ 겹눈질, 손가락질, 입질, 주먹질	

㉢ 담금질, 도둑질, 발길질, 선생질, 순사질, 싸움질 ㉣ 물질, 불질, 풀질, 흙질 ㉤ 딸꾹질, 뚝딱질, 수군덕질
--

-짜리	
㉠(수나 양 또는 값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그런 차림을 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th>예</th>	예
㉠ 한 뺨짜리, 열 살짜리, 오십 권짜리, 방 두 개짜리, 백 원짜리, 얼마짜리. ㉡ 양복짜리, 장옷짜리, 창의짜리.	

-죵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th>예</th>	예
내일죵, 이죵, 얼마죵, 중간죵, 12월 20일죵	

-코	
(일부 한자 어근이나 명사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말.  <th>예</th>	예
기어코, 기필코, 결단코, 맹세코, 무심코, 정녕코, 한사코	

-투성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th>예</th>	예
흙투성이, 피투성이	

-하다				
행위성 명사 뒤에서는 무조건 접사이고, 부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한다. 간혹 부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붙여 써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표제어에 등재된 것만 붙여 쓰는데, 의성·의태어 뒤의 '-하다' 혹은 구체성 명사 뒤의 '-하다'를 예로 들 수 있다. '하다'가 붙은 말의 띄어쓰기에 혼란이 많으므로 접사 이외의 경우도 묶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table border="1"> <tr><th>예</th><th>비고</th></tr> <tr><td>공부하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절하다, 머리하다, 밥하다, 빨래하다, 나무하다</td><td>이 경우 '하다'는 접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항목이므로 비록 접사라도 표제어에 없는 말은 띄어 쓴다. 즉 '음악 하는 친구, 조교 하는 친구, 떡 하는 과정이 밥하는 과정'</td></tr> </table>	예	비고	공부하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절하다, 머리하다, 밥하다, 빨래하다, 나무하다	이 경우 '하다'는 접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항목이므로 비록 접사라도 표제어에 없는 말은 띄어 쓴다. 즉 '음악 하는 친구, 조교 하는 친구, 떡 하는 과정이 밥하는 과정'
예	비고			
공부하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절하다, 머리하다, 밥하다, 빨래하다, 나무하다	이 경우 '하다'는 접사로 되어 있지만 원래 통사적 합성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항목이므로 비록 접사라도 표제어에 없는 말은 띄어 쓴다. 즉 '음악 하는 친구, 조교 하는 친구, 떡 하는 과정이 밥하는 과정'			

	보다 훨씬 복잡하다' 등으로 띄어쓰기한다.
반짝반짝하다, 덜컹덜컹하다	이런 의성어, 의태어에 붙는 '하다'도 접사로 되어 있지만, 표제어에 없는 말은 띄어 쓴다. 즉 '어디선가 <b>짹</b>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로 띄어쓰기한다.
그가 지금 밥을 먹는 <b>듯하다</b> , 사냥꾼이 다가가자 곰이 죽은 <b>체했다</b>	원래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오는 '듯하다, 체하다, 만하다, 척하다, 뻔하다, 양하다, 법하다' 등에서의 '하다'는 띄어 쓰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 '듯'이나 '체'와 연결될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 듯 말 듯 하다, 본 체 만 체 했다'와 같이 띄어쓰기한다.
먹고 싶어 <b>하다</b> , 어쩔 줄 몰라 <b>하다</b> , 자신 없어 <b>하다</b>	'하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였을 경우에 띄어쓰기한다.
보일락 말락 <b>하다</b> , 달을락 말락 <b>하다</b>	표제어로 있는 경우: 붉으락푸르락하다('붉으락푸르락'의 부표제어), 엷치락뒤치락하다('엷치락뒤치락'의 부표제어), 귀락피락하다('귀락피락'의 부표제어)
이러쿵저러쿵 <b>하다</b> ('이러쿵저러쿵'의 부표제어), 이리이러 <b>하다</b> ('이리이러'의 부표제어)	왔다 갔다 하다, 앉았다 섰다 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이랬다저랬다'는 표제어에 있지만 부표제어로 '-하다'가 붙은 말은 없다)

(나) 한자어 접미사

<b>-가량(假量)</b>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10% <b>가량</b> , 한 시간 <b>가량</b> , 30세 <b>가량</b>

<b>-간(間)</b>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동안'의 뜻을 더함.
㉡ (몇몇 명사 뒤에 붙어)'장소'의 뜻을 더함.
<b>예</b>
㉠ 십 년 <b>간</b>
㉡ 대장 <b>간</b>
[주의]'간'은 '서울 부산 <b>간</b> , 부모 자식 <b>간</b> '의 예처럼 의존 명사로 '사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23쪽).

<b>-경(頃)</b>
(시간이나 날짜 따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오전 9시 <b>경</b> , 16세기 <b>경</b> , 월말 <b>경</b> , 9월 초순 <b>경</b>

<b>-권(券)</b>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이나 권리를 증명하는 표(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지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 관람 <b>권</b> , 상품 <b>권</b> , 승차 <b>권</b> , 입장 <b>권</b>
㉡ 천 원 <b>권</b> , 오천 원 <b>권</b> , 만 원 <b>권</b>

<b>-기(期)</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기간', '시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방학 <b>기</b> , 유아 <b>기</b> , 장년 <b>기</b> , 청년 <b>기</b>

<b>-기(氣)</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함.
<b>예</b>
기름 <b>기</b> , 화장 <b>기</b>

<b>-과(課)</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무 부서'의 뜻을 더함.
<b>예</b>
인사 <b>과</b> , 총무 <b>과</b>

<b>-곡(曲)</b>
어떤 종류의 노래나 악곡이라는 뜻을 더함.
<b>예</b>
합창 <b>곡</b> , 피아노 <b>곡</b>

<b>-당(當)</b>
(수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마리 <b>당</b> 삼천 원, 시간 <b>당</b> 얼마, 열 마리 <b>당</b> , 40명 <b>당</b>

<b>-대(帶)</b>
㉠ '띠 모양의 공간' 또는 '일정한 범위의 부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띠 모양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 공감대, 기후대
㉡ 구명대, 지혈대

<b>-덕(宅)</b>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아내’의 뜻을 더함.
예
㉠ 오라버니 <b>덕</b>
㉡ 안성 <b>덕</b>
[주의]다음 예에서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맹 진사 <b>덕</b> 경사, 김 서방 <b>덕</b> , 강 씨 <b>덕</b> 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b>-별(別)</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예
능력 <b>별</b> , 성 <b>별</b> , 월 <b>별</b> , 직업 <b>별</b> , 학년 <b>별</b>

<b>-부(部)</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부분’이나 ‘부문(部門)’의 뜻을 더함.
예
머리 <b>부</b> , 어휘 <b>부</b>

<b>-분(分)</b>
㉠ (수사 뒤에 붙어) ‘전체를 그 수만큼 나눈 부분’의 뜻을 더함.
㉡ (일부 명사 또는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분량’의 뜻을 더함.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성분’의 뜻을 더함.
예
㉠ 삼 <b>분</b> 의 일
㉡ 초과 <b>분</b>
㉢ 영양 <b>분</b>

<b>-분지(分之)</b>
(한자어 수사 뒤에 붙어) 몇 몫으로 나눈 가운데의 뜻을 더함.
예
삼 <b>분지</b> 일, 몇 <b>분지</b> 몫

<b>-상(上)</b>
㉠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함.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함.
예
㉠ 관례 <b>상</b>

㉠ 통신 <b>상</b> 의 비밀
--------------------

<b>-손(孫)</b>
(‘대(代)’, ‘세(世)’ 뒤에 붙어) ‘자손’의 뜻을 더함.
예
십일 대 <b>손</b> , 7대 <b>손</b>
[주의] ‘손’은 ‘손이 귀한 집’처럼 명사로 ‘후손’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b>-시(視)</b>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여김’ 또는 ‘그렇게 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등한 <b>시</b> , 백안 <b>시</b> , 적대 <b>시</b>

<b>-실(室)</b>
㉠ ‘방’의 뜻을 더함.
㉡ ‘사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 연구 <b>실</b>
㉡ 국무총리 <b>실</b>

<b>-씨(氏)</b>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함.
예
김 <b>씨</b> , 최 <b>씨</b> 문중
[주의](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일 때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 의존 명사 ‘씨’ 참고(25쪽).

<b>-여(餘)</b>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십오 년 <b>여</b> 의 세월, 한 시간 <b>여</b> 를 기다리다.

<b>-왕(王)</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의 뜻을 더함.
예
저축 <b>왕</b> , 컴퓨터 <b>왕</b>

<b>-조(祖)</b>
(‘대(代)’ 뒤에 붙어) ‘조상’의 뜻을 더함.

<b>예</b>
오 대조, 7대조

<b>-조(朝)</b> (왕명 또는 왕조를 나타내는 대다수 고유 명사 뒤에 붙어) ‘통치 기간’ 또는 ‘왕조’의 뜻을 더함.
<b>예</b>
성종조, 조선조

<b>-재(材)</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재료’의 뜻을 더함.
<b>예</b>
가구재, 건축재

<b>-적(的)</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가급적, 국가적, 기술적, 문화적, 비교적, 사교적, 일반적, 전국적

<b>-제(制, 祭, 製)</b>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제도’ 또는 ‘방법’의 뜻을 더함. (制)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제사’ 또는 ‘축제’의 뜻을 더함. (祭) ㉢ (국명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뜻을 더함. (製)
<b>예</b>
㉠ 대통령제 ㉡ 예술제 ㉢ 중국제

<b>-하(下)</b>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함.
<b>예</b>
식민지하,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체제하

<b>-행(行)</b> (지명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곳으로 향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b>예</b>
서울행, 목포행

**(다) 접사 연속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 다시 그 접사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모두 붙일지 아니면 접사 연속체를 한 단어로써 떼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시각적인 면과 띄어쓰기 관용을 고려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붙여 쓰고 있다. 본 지침서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접사 연속체	맞음	틀림
계장(係長)	한국은행 대출계장	한국은행 대출 계장
곡집(曲集)	피아노곡집	피아노 곡집
과장(課長)	총무과장	총무 과장
과장(科長)	소아과장	소아 과장
관장(館長)	박물관장	박물관 장
교도(教徒)	기독교도	기독교 도
교인(敎人)	이슬람교인	이슬람 교인
단원(團員)	봉사단원	봉사 단원
단장(團長)	야구단장	야구 단장
대원(隊員)	119 구조대원	119 구조 대원
대장(隊長)	소방대장	소방 대장
반장(班長)	작업반장	작업 반장
부장(部長)	기획부장	기획 부장
사가(史家)	근대사가	근대 사가
서장(署長)	청량리 경찰서장	청량리 경찰 서장
소장(所長)	어학 연구소장	어학 연구 소장
시인(詩人)	서사시인	서사 시인
시집(詩集)	연애시집	연애 시집
식장(式場)	결혼식장	결혼 식장
실장(室長)	사전 편찬실장	사전편찬실장
업계(業界)	섬유업계	섬유 업계
업소(業所)	유흥업소	유흥 업소
업자(業者)	수입업자	수입 업자
업주(業主)	대행업주	대행 업주
업체(業體)	제조업체	제조 업체
왕릉(王陵)	무녕왕릉	무녕 왕릉
용수(用水)	공업용수	농업 용수
용지(用紙)	사무용지	사무 용지
용지(用地)	공업용지	공업 용지
용품(用品)	유아용품	유아 용품
원장(院長)	감사원장	감사 원장
조장(組長)	습격조장	습격 조장
학자(學者)	동양학자	동양 학자
화가(畫家)	동양화가	동양 화가
회장(會長)	문학회장	문학 회장
회장(會場)	박람회장	박람 회장

1.68 [주의 1] ‘무허가 업소’, ‘경쟁 업체’: 이 말들은 각각 ‘업소’가 ‘무허가’라는 뜻과 ‘업체’가 ‘경쟁적’이라는 뜻이 있으며 ‘무허가업’, ‘경쟁업’에 ‘-所’, ‘-體’가 붙은 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비슷한 경우로 ‘금속 용품, 목재 용품’에서도 ‘용품’을 앞말과 띄어 쓴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는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1.68 [주의 2] ‘박물관 관장, 야구단 단장, 문학회 회장, 기념회 회장’: 위의 예에서 이 말들을 ‘박물관장, 야구단장, 문학회장, 기념회장’으로 쓸 때에는 붙여 쓴다고 했는데, 이 예들에서 ‘단체명’과 ‘관장, 단장, 회장(會長), 회장(會場)’이 분리되면 당연히 띄어 쓸 수밖에 없다.

1.68 [주의 3] 위의 ‘동양학자, 동양화가’는 의미에 따라 ‘동양 학자, 동양 화가’로 띄어 쓸 수 있다. 이 경우의 뜻은 ‘동양인 학자/화가, 동양의 학자/화가’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근대 사가’로 띄어 쓸 경우의 뜻은 ‘근대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로 해석된다.

1.68 [주의 4] 다소 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용구’는 독립적인 용법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유형에 넣지 않았으므로 띄어 쓴다: 스포츠 용구, 교수 용구

1.68 [주의 5] ‘파출소장’과 ‘경찰서장’과 비교해 볼 때, 언뜻 보기에 ‘경무 총감’도 붙여 써야 할 듯하다. 그러나 ‘경무총’이라는 곳은 없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접두사

- 정의: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용법: 접두사는 뒷말에 붙여 쓴다.

<b>대(大)-</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큰, 위대한, 훌륭한, 범위가 넓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b>예</b>
대가족, 대기자, 대보름, 대선배, 대성공

<b>대(對)-</b>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 ‘그것에 대한’ 또는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b>예</b>
대국민 사과문, 대북한 전략 [주의] ‘대(對)-’는 ‘~에 대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명사 ‘대(對)’와 구분해서 써야 한다.

<b>미(未)-</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아직 아닌’ 또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b>예</b>
미개척, 미성년, 미완성, 미해결

<b>범(汎)-</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b>예</b>
범태평양, 범세계적

<b>신(新)-</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b>예</b>
신세대, 신경제, 신기록, 신세계

<b>제(第)-</b> (대다수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b>예</b>
제일, 제이, 제삼

<b>주(註)-</b> (국명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그 명사의 축약형 앞에 붙어) ‘그 나라에 머
---

물러 있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주러시아, 주미, 주일, 주한	

<b>초(超)-</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어떤 범위를 넘어선' 또는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초강대국, 초음속, 초만원.	

**타. 어미**

- 정의: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 예: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에서 '다', '으며', '고' 따위.
- 용법: 활용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보므로 언제나 앞의 어간에 붙여 쓴다.

<b>-거니</b> (어간 바로 뒤에 붙어)('-거니 -거니' 구성으로 쓰여) 대립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되풀이됨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b>-고말고</b>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상대방의 물음에 대하여 긍정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내가 하고 <b>말고</b>	내가 하고 <b>말고</b>	
나야 물론 <b>좋고말고</b>	나야 물론 <b>좋고 말고</b>	

<b>-니 데</b> <b>-는데</b> ㉠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씀. ㉡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냄.		
<b>맞음</b>	<b>틀림</b>	
㉠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b>있는데</b> 전화벨이 울렸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b>있는 데</b> 전화벨이 울렸다.	
㉡ 성적이 많이 <b>올랐는데?</b>	성적이 많이 <b>올랐는 데?</b>	
[주의]의존 명사 '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의존 명사 '데' 해설 참고(16쪽).		

<b>-니 죽(손)</b> <b>-은죽(손)</b> (예스러운 표현으로) 앞 절의 일이 뒤 절의 근거나 이유임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 <b>은죽</b> 효과가 남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 <b>은 죽</b> 효과가 남디다.	
물건 <b>인죽</b> 은 최상품입니다.	물건 <b>인 죽</b> 은 최상품입니다.	

<b>-는걸</b> <b>-은걸</b> <b>-을걸</b> ㉠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처럼 쓰여, 화자의 추측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냄. ㉡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아니한 어떤 일에 대하여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b>맞음</b>	<b>틀림</b>	
㉠ 그 사람은 벌써 떠났 <b>을걸</b> .	그 사람은 벌써 떠났 <b>을 걸</b> .	
㉡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먹 <b>을걸</b> .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먹 <b>을 걸</b> .	

<b>-는지</b> <b>-은지</b> <b>-을지</b>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그가 <b>갔는지</b> 모르겠다.	그가 <b>갔는 지</b> 모르겠다.	
네가 몇 시쯤 도착 <b>할지</b> 를 미리 알려 다오.	네가 몇 시쯤 도착 <b>할 지</b> 를 미리 알려 다오.	
[주의] 의존 명사 '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의존 명사 '지' 해설 참고(21쪽).		

<b>-는바</b> <b>-은바</b>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문어체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씀.		
<b>맞음</b>	<b>틀림</b>	
시험이 잠시 후에 실시되는 <b>바</b> 모두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시험이 잠시 후 실시되는 <b>바</b> 모두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금강산에 가 <b>본바</b> 과연 절경이더군.	금강산에 가 <b>본 바</b> 과연 절경이더군.	
[주의]의존 명사 '바'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의존 명사 '바' 해설 참고(18쪽).		

<b>-다마는</b>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여 말할 때 씀.	
<b>맞음</b>	<b>틀림</b>
이번에는 내가 참겠다 <b>다</b> 마는 다음에는 용서 없다.	이번에는 내가 참겠다 <b>마</b> 는 다음에는 용서 없다.
물건은 좋다 <b>다</b> 는 너무 비싸다.	물건은 좋다 <b>마</b> 는 너무 비싸다.

<b>-다마다</b>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상대방의 물음에 대하여 긍정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예쁘 <b>다</b> 마다	예쁘 <b>다</b> <b>마</b> 다
네 말이 맞 <b>다</b> 마다.	네 말이 맞 <b>다</b> <b>마</b> 다.

<b>-다시피</b>	
㉠(‘알다’, ‘보다’, ‘느끼다’, ‘짐작하다’ 따위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는 바와 같이’의 뜻을 나타냄.	
㉡(동사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동작에 가까움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 아 <b>시</b> 다 <b>시</b> 피	아 <b>시</b> 다 <b>시</b> 피
㉡ 그는 연구실에서 살 <b>다</b> 다 <b>시</b> 피 했다.	그는 연구실에서 살 <b>다</b> <b>시</b> 피 했다.

<b>-듯(이)</b>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구름에 달 가 <b>듯</b>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 <b>듯</b> 가는 나그네
변덕이 죽 끓 <b>듯</b> 하다.	변덕이 죽 끓 <b>듯</b> 하다.
[주의]의존 명사 ‘듯’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의존 명사 ‘듯’ 해설 참고(16쪽).	

<b>-라치면</b>	
<b>-을라치면</b>	
앞 절의 일이, 그 일이 있으면 으레 어떤 결과가 따르는 것을 경험한 데에서 하나의 조건으로 추상화해 낸 것임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돈 부탁을 할 <b>라</b> 치면 판청부터 피웠다	돈 부탁을 할 <b>라</b> <b>치</b> 면 판청부터 피웠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 <b>을</b> 라 <b>치</b> 면, 어느새 엄마가 집에 오셨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 <b>을</b> 라 <b>치</b> 면, 어느새 엄마가 집에 오셨다.

<b>-르망정</b>	
<b>-을망정</b>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 씀.	
<b>맞음</b>	<b>틀림</b>
시험에 떨어질 <b>망</b> 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시험에 떨어질 <b>망</b> 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차라리 얼어 죽 <b>을</b> 망 <b>정</b> 것붙은 아니 쪼겠다.	차라리 얼어 죽 <b>을</b> <b>망</b> 정 것붙은 아니 쪼겠다.

<b>-르밖에</b>	
<b>-을밖에</b>	
해할 자리에 쓰여, ‘-을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내놓으라면 내놓 <b>을</b> 밖에	내놓으라면 내놓 <b>을</b> <b>밖</b> 에
약을 먹으니 나 <b>을</b> 밖에.	약을 먹으니 나 <b>을</b> <b>밖</b> 에.

<b>-르수록</b>	
<b>-을수록</b>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높이 올라갈 <b>수</b> 록 추워진다.	높이 올라갈 <b>수</b> 록 추워진다.
이 책은 읽 <b>을</b> 수 <b>록</b> 새로운 감동을 준다.	이 책은 읽 <b>을</b> <b>수</b> 록 새로운 감동을 준다.

<b>-르지니라</b>	
<b>-을지니라</b>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마땅히 그러할 것이니라’의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모성애가 가장 거룩 <b>할</b> 지 <b>니</b> 라.	모성애가 가장 거룩 <b>할</b> <b>지</b> 니라.
너희는 내 말을 믿 <b>을</b> 지 <b>니</b> 라.	너희는 내 말을 믿 <b>을</b> <b>지</b> 니라.

<b>-르지라도</b>	
<b>-을지라도</b>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 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 씀.	
<b>맞음</b>	<b>틀림</b>
비록 꾸며 낸 이야기 <b>일</b> 지 <b>라</b> 도	비록 꾸며 낸 이야기 <b>일</b> <b>지</b> 라도
마음에 걱정이 있 <b>을</b> 지 <b>라</b> 도 내색하지 마라.	마음에 걱정이 있 <b>을</b> <b>지</b> 라도 내색하지 마라.

<b>-(으)니만큼</b>	
<b>-(으)리만큼</b>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오-', '-더-' 뒤에 붙어)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열심히 일했 <b>으니만큼</b>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열심히 일했 <b>으니 만큼</b>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밥도 못 먹 <b>으리만큼</b> 기운이 없다.	밥도 못 먹 <b>으리 만큼</b> 기운이 없다.

<b>-(으)니만치</b>	
<b>-(으)리만치</b>	
'-르 정도'의 뜻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꿈쩍도 못하 <b>리만치</b> 지쳐 있었다.	꿈쩍도 못하 <b>리 만치</b> 지쳐 있었다.
[주의] '-(으)니만큼, -(으)리만큼'과 같은 경우이다.	

<b>-으련마는</b>	
<b>-런마는</b>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리이러한 결과가 기대되는데, 아쉽게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대하는 결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냄.	
<b>맞음</b>	<b>틀림</b>
벌써 제 잘못을 알았 <b>으련마는</b> 아직 사과를 안 한다.	벌써 제 잘못을 알았 <b>으런 마는</b> 아직 사과를 안 한다.
집에 도착했 <b>으련마는</b> 아직 연락이 없다.	집에 도착했 <b>으런 마는</b> 아직 연락이 없다.

<b>-자마자</b>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자 잇따라 곧 다음 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b>맞음</b>	<b>틀림</b>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먹 <b>자마자</b> 토해 버렸다.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먹 <b>자 마자</b> 토해 버렸다.
그는 나를 보 <b>자마자</b> 대뜸 화부터 냈다.	그는 나를 보 <b>자 마자</b> 대뜸 화부터 냈다.

**파. 외래어 띄어쓰기**

①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합성어로 제시한 것은 국어 체계 내에서는 합성어로 판단한 것이므로 붙여 쓴다.

예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콩콩, 텀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티업,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② 준말이나 음운론적 융합이 일어난 말은 붙여 쓴다.

예
르포라이터(reportage writer), 애드벌룬(ad balloon), 에어컨(air conditioner), 리모콘(remote control), 옴라이스(omelet rice), 오토바이(auto bicycle), 오피스텔(office hotel), 아이큐(IQ)

③ 접사나, 접사처럼 쓰이는 1음절 한자어가 외래어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붙여 쓴다.

예
남아메리카, 싱크대, 이슬람교, 메이플라워호, 그레고리우스력

④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쓸 원칙으로 한다.

예
고스톱(go stop),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⑤ 외래어 다음의 '인(人), 족(族), 어(語)'는 띄어 쓴다.

원칙	허용 안 됨
그리스 인	그리스인
그리스 어	그리스어
그리스 족	그리스족

다만, 화석 인류 명칭에 붙는 '-인(人)'은 접사로 보아 붙여 쓴다.

예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농인

## 2. 문장 부호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를 따랐다. 다만, 자주 틀리게 사용하는 문장 부호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고 일부 규정은 추가하였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마침표[終止符]

#### (1) 온점(.), 고리점(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예	비고
서술문: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명령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예)
청유문: 집으로 돌아가자.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예	비고
1919. 3. 1. (1919년 3월 1일)	다음은 온점이 없어서 틀린 표현이다. 예) 1919. 3. 1 2007. 10. 25(목)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예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예
서. 1987. 3. 5. (서기)

(5)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에도 온점을 사용한다.

맞음	틀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 나.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예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나?
남북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예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예	비고
너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다음은 틀린 표현이다. 예) 너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다음은 틀린 표현이다.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예
이 일을 도대체 어쩔단 말이나.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다.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예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예	비고
지금 즉시 대답해!	강한 명령문
부디 몸조심하도록!	청유문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예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예	비고
이게 누구야!	놀람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내가 왜 나빠!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예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5) 한 문장에 느낌표는 하나만 써야 한다.

맞음	틀림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라. 쉼표[休止符]**

(1) 반점(.), 모점(,)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예	비고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공원이다.	예)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예	비고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반점이 없으면 뜻이 모호해진다. 예)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것이 경주인지 불국사인지 무영탑인지 모호하다.)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예)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철수인지, 누이동생인지 모호하다.)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예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예
이리 오세요, 어머니님. 다시 보자, 한강수야.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예
아, 깜빡 잊었구나.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예	비고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예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예
1, 2, 3, 4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예
5, 6세기 6, 7개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예
14,314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선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예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맞음	틀림
3·1 운동	3.1 운동
8·15 광복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맞음	틀림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경북 방언의 조사, 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충북, 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동사, 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 )**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예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예
일시: 1984년 10월 15일 10시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예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예	비고
오전 10:20 (오전 10시 20분)	시(時)와 분(分)을 구별할 때
요한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장(章)과 절(節)을 구별할 때
65:60 (65 대 60)	대비할 때

**(4) 빗금( / )**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예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예
3/4 분기
3/20

**마.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 ), 겹낫표( 『 』 )**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주의: 가로쓰기에서 겹낫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	비고
『저 멀리 동해 바다를 봐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가로쓰기에서 겹낫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였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예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가로쓰기에서 책 제목 등은 겹낫표 대신에 흔히 ‘《》’을 쓰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을 쓸 수 없다.

틀림	맞음
김수민은 자전적 에세이 《오늘 하루》를 출판했다.	김수민은 자전적 에세이 ‘오늘 하루’를 출판했다.

**(2) 작은따옴표( ‘ ’ ), 낫표( 『 』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주의: 가로쓰기에서 낫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	비고
「2007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	가로쓰기에서 낫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하였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예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붙임표(-)**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예	
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휘-날리다
슬기-롭다	-(으)르걸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예	
나일론-실	디-장조
빛-에너지	영화-칼럼

**(3) 불결표(~)**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예
9월 15일 ~ 9월 25일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예
새마을: ~ 운동, ~ 노래
-가(家): 음악~, 미술~

**아.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예
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을 치기도 한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자.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 빠짐표(□)**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薦 (옛 비문)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예	비고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다음은 틀린 표현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예
“빨리 말해!”
“…….”

○ 참고: 자주 틀리는 외래어 표기

맞음	틀림
가스	까스
가우타마 싯타르타	고타마 싯다르타
가운	까운
가톨릭	카톨릭
갠지스 (강)	갠지즈 (강)
갱	깡
겔스카우트	겔스카웃
게임	깨임
곤돌라	곤도라
골키퍼	골기퍼
깁스	기부스
나일론	나이론
내레이터	나레이터
내비게이션	네비케이션
냅킨	내프킨
네트워크	네트웍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즈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다이내믹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다큐멘터리	다큐멘타리
달러	달라
데뷔	데뷰
데뷔	데뷰
데생	뎃상
데스크톱	데스크탑
데이터	데이타
덴마크	덴마아크
도넛	도너츠
도쿄	도쿄
디렉터리	디렉토리
디지털	디지틀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락
라이선스	라이센스
라이터	라이타
라커룸	락카룸
라켓	라케트
래퍼	랩퍼
랩톱 (컴퓨터)	랩탑 (컴퓨터)
러닝머신	런닝머신
러닝메이트	런닝메이트
러닝셔츠	런닝셔츠
러키 (lucky)	럭키
레이더	레이다
레이저	레이저

레인지	렌지
레저	레저
레크리에이션	레크레이션
레퍼토리	래퍼토리
렌터카	렌트카
로드 맵	로우드 맵
로맨스	로멘스
로봇	로보트
로션	로오손
로열티	로얄티
로켓	로케트
로큰롤	락앤롤
로터리	로타리
롤러	로라
류머티즘	류머티스
리더십	리더쉽
리모컨	리모콘
리사이틀	리싸이틀
리포트	레포트
링거	링겔
마네킹	마네킨
마니아	매니아
마사지	맛사지
마이너스	마이ナス
마커펜	마카펜
마케팅	마켓팅
마케팅	마켓팅
마호메트	마호멧
말레이시아	말레시아
매머드	맘모스
맨션	맨손
맨해튼	맨하튼
메가폰	메카폰
메리트(merit)	메릿
메시지	메세지
메시지	메세지
멤버십	멤버쉽
모차르트	모짜르트
무술리니	뭇술리니
미라	미이라
미스터리	미스테리
밀크 셰이크	밀크 웨이크
바리케이드	바리케이트
바비큐	바베큐
바텐더	바텐다
배지	뺏지
배터리	밧데리

배턴 터치	바톤 터치
백	백
백 코러스	백 코러스
백미러	백 밀러
밴쿠버	밴쿠버
밸런스	발란스
밸런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버스	베스
버전	버전
버튼	보턴
베네수엘라	베네주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주엘라
베이징	베이징
벤처 (기업)	벤처 (기업)
벤처	벤처
보닛(자동차)	보네트, 본네트, 보넷
보디 (용품)	바디 (용품)
보일러	보일러
불도그 (개)	불독
불도저	불도우저
뷔페	부페
뷔페	부페
브로슈어	브로셔
브로치	브로찌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톡
블라인드	블라인더
블록	블럭
블록머스터	블럭마스터
비전	비전
비즈니스	비지니스
사우나	싸우나
사이트	싸이트
사인	싸인
사인펜	싸인펜
상파울루	상파울로
새시	샷시
색소폰	색소폰
샌들	샌달
샘플	샘플
생큐	맹큐
서비스	써비스
서비스	써비스
서클	써클
서핑	써핑
선글라스	션글래스
세리머니	세레머니
세트	셋트

세팅	셋팅
센터	센타
센티미터	센치미터
셰어웨어	웨어웨어
세익스피어	섹스피어
세퍼드	세파트
소스	쏘스
소시지	소세지
소파	쇼파
쇼룸	쇼우룸
샷(shot)	쇼트
수프	스프
슈팅	슛팅
슈팅	슛팅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모델	슈퍼모델
스로인(축구)	드로잉
스카우트	스카웃
스케줄	스케줄
스타디움	스테디엄
스태미나(stamina)	스태미너
스태프	스텝
스티로폼	스티로폴
스티로폼	스티로폼
스펀지	스폰지
스페셜	스페셜
스펙트럼	스펙트럼
스프링클러(sprinkler)	스프링클러
슬래브 (건물)	슬라브 (건물)
시리얼(cereal)	씨리얼
시리즈	씨리즈
시소	시이소
시스템	씨스텝
시프트 (shift)	쉬프트
심벌 (마크)	심볼 (마크)
싱가포르	싱가폴
싱크대	앵크대
어나운서	어나운서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레이트
아수르	앗수르
아카드인	악카드인
아프가니스탄	아프카니스탄
액센트	엑센트
알레르기	알러지
알칼리성	알카리성
알코올	알콜
앙코르	앵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드립	애드립
애틀랜타	아틀랜타
액세서리	악세서리
엑세스	엑세스
엑셀러레이터	악셀레이터
어드벤처	어드벤처
에세이	에세이
에스파냐	에스파니아
에어컨	에어콘
에콰도르	에쿠아도르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
엑기스	엑기스
엔도르핀	엔돌핀
엘리자베스	엘리자베드
엘리트	엘리트
엠블런스	엠블런스
엘로	엘로우
엘로	엘로우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리엔탈	오리엔탈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픈렛	오픈릿
오프사이드	오피사이드
오프사이드	오피사이드
옵니버스	옵니버스
옵부즈맨	옵부즈만
요구르트	야쿠르트
워크숍	워크샵
웹 서핑	웹 써핑
윈도	윈도우
유머	유우머
이태리타일	이태리타올
인디애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넷 자키	인터넷 자키
잉글리시	잉글리쉬
장르	장르
재스민	쟈스민
재즈	째즈
재킷	자켓
재판	재판
전자레인지	전자렌지
주스	쥬스
차트	챗트
찬스	찬스
챔피언	챔피온

체크	첵크
초콜릿	초콜렛
칭기스칸	칭기스칸
카이사르	케사르
카탈로그	카달로그, 카다록, 카달록
카페	까페
카페	까페
카펫	카페트
칸 (영화제)	칸느 (영화제)
칼럼니스트	컬럼니스트
캐나다	카나다
캐러멜	카라멜
캐릭터	캐릭터
캐비닛	캐비넷
캐시	캐쉬
캐주얼	캐주얼
캠버스	캠버스
커피	커피
커리어 우먼	캐리어 우먼
커리큘럼	커리큘럼
커뮤니티	커뮤니티
컷트	컷
컷트 (머리)	컷트 (머리)
컷텐	컷텐
컷피숍	컷피샵
컨소시엄	컨소시움
컨트롤	콘트롤
컬러	칼라
케이크	케이
케첩	케찹
캐플러	캐플러
코미디	코메디
코카서스(지명)	코카스
콘셉트	컨셉
콘크리트	콩크리트
콘택트렌즈	컨택트렌즈
콘테스트	컨테스트
콘텐츠	컨텐츠
컴플렉스	컴플렉스
컴플렉스	컴플렉스
콩쿠르	콩쿨
콩쿠르	콩쿨
콩트	콩트
콩트	콩트
클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쿠데타	쿠데타
쿼터	쿼터

크루아상	크로와상
크리스천	크리스찬
클라이맥스	클라이막스
클럽	크럽
칼로버	클로바
클린저	클린저
킬로	키로
킬로그램	킬로그램
타깃	타겟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타입(type)	타이프
탈런트	탈렌트
터부	타부
터키	터어키
테이프	테일
테크놀로지	테크놀러지
텔레비전	텔레비전
토마토	도마도
톱클래스	톱클라스
트로트	트롯
티브이	티비
팀워크	팀웍
팀워크	팀웍
파리	빠리
파운데이션	화운데이션
파이팅	화이팅
파일	화일
파친코	빠징꼬
판타지	환타지
패널	관넬
패밀리	웨밀리
패키지	팩키지
팬터마임	판토마임
팸플릿	팸프렛
피머 (머리)	파마 (머리)
페널티 킥	패널티 킥
페리	웨리
페스티벌	페스티발
페스티벌	페스티발
페트 (병)	팻트 (병)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볼	포오볼
포클레인	포크레인
포털서비스	포탈서비스
포토숍	포토샵
포플러 (나무)	포플라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터

푸저우 (지명)	복주
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
프라이팬	후라이팬
프렌차이즈	프렌차이즈
프로포즈	프로포즈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프로덕션	프러덕션
프리지어 (꽃)	후리지어 (꽃)
플라스틱	프라스틱
플래시	후레쉬
플래시 메모리	플래쉬 메모리
플래카드	프랭카드
플루트	플룻
피라미드	피라밋
피지	휘지
핀란드	핀랜드
핀셋	핀세트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하이라이트	하일라이트
할리우드	힐리우드
해프닝	헤프닝
헤로도토스	헤로도투스
헬멧	헬멧
호놀룰루	호놀룰루
호르몬	홀몬
호치키스	호치케트
홈시어터	홈씨어터
홉(HOP)	호프
히타이트	히타이트
히터	히타
힙소스인	힙스스인



본(本)	34	-스럽다	45
본데없다	30	승(僧)	10
볼품없다	30	시(時)	10
-부(部)	50	-시(視)	51
부실(不實)	8	시(詩)	10
부장(部長)	53	시	20
부질없다	30	시인(詩人)	53
-분(分)	50	시집(詩集)	53
분	8	-시키다	45
분별없다	30	식	10
-분지(分之)	50	식장(式場)	53
불(佛)	10	신(神)	10
비(比)	10	신(新)-	55
비(碑)	10	-실(室)	51
빈틈없다	30	실(實)	10
빛없다	30	실장(室長)	53
빠짐없다	30	쌍(雙)	10
편	19	씨(氏)	25
편하다	40	-씨(氏)	51
뿐	19	씨	9
뿐	38		

**人**

**오**

오다	42
오른	34
옥	11
온데간데없다	30
-왕(王)	51
왕릉(王陵)	53
왜(倭)	11
외딴	34
원	34
용수(用水)	53
용지(用地)	53
용지(用紙)	53
용품(用品)	53
원장(院長)	53
-오런마는	60
-(으)니만치	60
-(으)니만큼	60
-(으)리만치	60
-(으)리만큼	60
은	11
-은결	57
-은바	57
-은죽(은)	57
-은지	57
은커녕	39
-을걸	57
-을라치면	58
-을망정	59
-을밖에	59
-을수록	59
-을지	57
-을지니라	59
-을지라도	59
음(音)	9
이	20
이다	39
있	9

**ㅈ**

자(字)	9
-자마자	60
-잡이	46
-재(材)	52
-적(的)	52
적	21
전(傳)	11
전(前)	34
전(全)	35
점(點)	11
-제(制, 祭, 製)	52
제(第)-	55
-조(祖)	51
-조(朝)	52
조(組)	11
조장(組長)	53
족족	21
죄(罪)	11
주(駐)-	55
주다	42
주의(主義)	11
줄	21
중(中)	25
즙	11
지	21
-지다	46
직(職)	11
진(鎭)	11
질(質)	11
-질	46
-짜리	47
-썸	47
쩍	11

**ㅊ**

차(差)	9	뒤김	11
차(車)	9	터	11
차	21		
채(菜)	11		
채	22		
책	9		
척	22		
철(鐵)	9	파(派)	11
청(靑)	9	판(版)	11
체	22	판(板)	9
체하다	40	판	23
초(醋)	11	패(牌)	11
초(超)-	56	편(便)	26
총(銃)	11	편(篇)	9
축(軸)	11	표(標)	11
측(側)	26	표(表)	11
치고	39	표(表)	9
침(針)	11		

**ㅍ**

**ㅎ**

**ㅋ**

**ㅌ**

커녕	39	-하(下)	52
-코	47	하고	39
		-하다	47
		하며	39
		학자(學者)	53
		함(艦)	11
		함(函)	9
		-행(行)	52
탄(彈)	11	향(香)	9
탄(炭)	11	형(刑)	11
탕(湯)	11	화가(畫家)	53
터	11	회(會)	11
터	22	회장(會場)	53
턱	22	회장(會長)	53
통(桶)	9	후(後)	11
통	22		
-투성이	47		

연구 책임자: 박재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공동 연구원: 강보선(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교과서 표기 감수 지침(시안)

---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07년 12월 28일
발행일	2007년 12월 30일
인 쇄	계문사 02-725-5216

---

(비매품)

